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리니지2M, 게임 기술 집약… 몇 년간 경쟁자 없을 것”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미디어 쇼케이스’서 자신감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술적으로 ‘리니지2M’을 따라올 수 있는 게임은 없을 것이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5일 서울 역삼동 ‘더 라움’에서 신작 모바일 MMORPG ‘리니지2M’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어 이 같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리니지2M은 이날 사전예약을 시작해 4분기 중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김택진 대표는 이날 게임개발총괄인 CCO(최고창의력책임자)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김 CCO는 “모두가 리니지M을 따라올 때 우리는 리니지2M으로 한발 앞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향해 떠났다”며 “저희들이 도착한 곳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1998년 리니지를 만든 김택진 CCO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성향은 아니지만 2015년 12월 ‘리니지 17주년’, 지난해 5월 ‘리니지M 출시 1주년’, 지난해 11

“4K 그래픽·로딩 없는 진행 등
현존 최고의 기술들 모아 개발
모두가 ‘리니지M’ 따라올 때
우리는 한발 앞선 미래 준비”

월 ‘리니지 리마스터’ 발표 등에서는 직접 나서 게임을 소개했다. 김택진 CCO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리니지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김택진 CCO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앞에 게임개발총괄책임자로 서는 두 번째 자리”라며 “두 번째 리니지의 모바일 버전인 리니지2M을 소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니지2M은 모바일 게임 최고 수준의 4K UHD급 그래픽을 구현했다. 또 ‘로딩 없는 플레이’인 심리스 월드를 구현해 내 게임 몰입에 저해되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대 규모로 구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5일 서울 역삼동 ‘더 라움’에서 신작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을 소개하고 있다.

현된 오픈 월드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른 이용자와 협력을 통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김택진 CCO는 “리니지2는 PC에서 3D로 심리스 월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되었던 게임”이라며 “목표로 삼았던 것은, 2D 게임 시대에서 MMO를 3D로 기술의 끝을 보여주는 게임을 만들어 보자는 도전

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니지2M 역시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을 모아서, 모바일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임의 한계를 넘어보자는 차원에서 리니지2M의 개발을 시작했다”며 “리니지2의 개발 정신을 모바일에서 구현하기 위해 모바일을 뛰어넘는 3D 그래픽을 구현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니지2는 4K 그래픽으로 현존하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가장 높은 그래픽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뿐만 아니라 PC에서도 고화질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김택진 CCO는 충돌 기술을 완성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게임 플레이 내에서 플레이어나 캐릭터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현하기에는 기술적인 난제가 많다”며 “리니지2M을 통해 게임 월드에서 실질적으로 내 몸으로 대항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CCO는 심리스 세계를 강점으로 소개했다. 그는 “게임에서 월드를 텔레포트 할 때 계속되는 로딩으로 플레이가 끊기는 느낌을 극복하고 누구든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심리스 월드를 개발해 보고자 했다”면서 “유저의 행동이나 움직임에 따라 랜스케이프와 에셋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로딩 없는 플레이가 모바일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애널리스트 직접 만난 ‘박정호 SKT 사장’

“5G·글로벌 파트너십 비교우위” 자신감

박정호<사진> SK텔레콤 사장이 애널리스트를 직접 만나 경영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발표하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CEO가 애널리스트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 경영진은 5일 애널리스트 초청 세미나에 총출동해 ‘우리가 이룬 변화, 우리가 가진 기회 - 이동통신사를 초월하다’를 주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SK텔레콤은 대외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월 주주총회에 이어 이번 행사의 진행 방식에도 큰 변화를 줬다.

먼저 박 사장이 매년 열리는 애널리스트 대상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경영 성과와 향후 비전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사전 투표 시스템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다양한 의견

을 취합해 질의응답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이례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사의 경영진도 여러 방식으로 자리를 빛냈다. 카림 조우드리 마이 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게임 총괄 부사장이 ‘Project xCloud(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 기술을 소개하고 SK텔레콤과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SK텔레콤은 애널리스트들이 5G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점프 AR·VR 등을 시연하는 별도 장소도 마련했다.

박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SK텔레콤

주춤 이어 대외소통 강화 나서
취임 3년 경영 성과·비전 발표



이 나아갈 방향으로 △5G 비즈니스 모델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독보적 뉴 ICT 시너지 회사로 변모를 제시했다. SK텔레콤은 실제로 박사장의 경영 기조에 따라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박 사장은 “5G 비즈니스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의 5G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게임, AR·VR, 스마트팩토리, 5G클러스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글로벌 파트너십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게임, 싱글레어-하만 ATSC3.0 방

송 솔루션, 도이치텔레콤 테크(Tech) 협력, 컴캐스트 e스포츠 합작회사 등으로 합종연횡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뉴 ICT 시너지 회사는 AI, 데이터 분석 기반의 MNO, 미디어, 보안, 커머스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재편된 이후 올해 연결 매출이 상승함으로써 본 궤도에 올라섰다”고 덧붙였다.

취임 후 3년간 경영 성과도 언급했다.

박 사장은 “5G 점유율 1위 달성과 더불어 상반기 무선 매출도 반등했고, 폭속수수 통합 OTT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법인이 출범했다”며 “ADT 캡스와 SK인포섹 편입을 통한 연간 첫 1조 원대 보안사업 매출 진입, 상반기 11번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언제나
밝고 풍성한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광고심의필 | 2019-1498-00000

유희양행

가족의 건강이 풍성한 한가위를 완성합니다.
빼꼼씨가 마음을 담아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부족한 한 끼의 완성
빼꼼씨®정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접으면 ‘갤럭시’ 펼치면 ‘겔탭’... 보호막 문제 완벽 해결”

삼성 ‘갤럭시 폴드’ 써 보니

240만 원에 달하는 갤럭시 폴드의 가격을 처음 들었을 때, “그만한 값어치를 할까”라는 의문이 든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5일 갤럭시 폴드를 직접 사용해 보니 의문은 싹 없어졌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정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우선 갤럭시 폴드를 여닫을 때 손맛이 좋았다. 양쪽에 자석을 탑재해 찰각하는 느낌으로 손쉽게 접힌다. 열리는 것도 책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특히 접었을 때는 21대 9 비율의 4.6형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 한 손으로 통화나 문자 등이 가능하다. 기자의 손은 평균 남자 크기보다 조금 작는데, 한 손 조작에 문제가 없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커버 화면으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어, 오히려 배터리 사용성 면에서 기존 스마트폰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펼쳤을 때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큰 7.3형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로 고화질의 영상이나 게임, 디지털 매거진, 프레젠테이션 등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가운데 접힌 부분도 영상을 보는 데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접힌 흔적을 찾아보려면 햇빛에 억지로 비춰야 겨우 보이는 수준이었다.

펼쳤을 때 두께는 갤럭시노트10과 거의

한 손으로 통화하다 양손으로 게임 내·외부 화면 끊김 없는 ‘앱 연속성’ ‘스마트폰+태블릿’ 비싸도 제값 이상

비슷했다. 당연히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 두 대의 두께지만 휴대에는 큰 지장이 없다. 무게는 276g으로 갤럭시노트10+의 196g보다 70g 더 나갔다. 묵직한 느낌이 있지만 무거운 정도는 아니다.

구입하기에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사실 역발상해 볼 필요도 있다.

최근 기자는 ‘갤럭시노트10 플러스’와 ‘갤럭시탭S6’를 구입했다. 노트10플러스가 139만7000원, 갤럭시탭S6가 89만8700원이나, 두 대를 합하면 229만5700원이다. 갤럭시 폴드 5G 가격 239만8000원과 큰 차이가 없다.

갤럭시 폴드는 사용자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 내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끊김 없이 자동으로 보여주는 ‘앱 연속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갤럭시 폴드를 접은 채로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메시지를 수신하고, 메시지에 포함된 약속 장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스마트폰을 펼치면 보던 지도 화면을 중단 없이 연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이메일을

갤럭시 폴드 5G 사양	
디스플레이	메인: 7.3형, 커버: 4.6형
프로세서	7나노 64비트 옥타코어 프로세서
무게	276g
카메라(총 6개)	커버: 1000만 화소 후면: 1600만 초광각, 1200만 듀얼 픽셀, 1200만 망원 전면: 1000만 화소, 800만 화소 심도
메모리	내장: 12GB 램 + 512GB
배터리	4235mAh(듀얼 2135mAh + 2100mAh)
지문인식	측면 지문 인식

갤럭시 폴드를 펼치거나(왼쪽), 접은 상태로 이투데이 기사를 띄워 놓은 모습. 시원시원한 7.3형 화면이라 눈에 잘 들어오고, 폰을 접어도 펼쳤을 때 보던 기사를 그대로 이어 볼 수 있다.

송영록 기자 syr@

확인과 답장이 필요할 경우, 갤럭시 폴드를 펼치기만 하면 큰 화면에서 쉽게 타

이팡할 수 있도록 큰 키보드를 보여준다. 카메라도 무려 6개가 달렸다.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나 펼쳤을 때 혹은 스마트폰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후면에 1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듀얼 조리개를 지원하는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등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다.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는 1000만 화소 카메라와 800만 화소 카메라의 듀얼 카메라로,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는 1000만 화소 카메라로 편리하게 셀피를 촬영할 수도 있다.

이번 제품에서 또 관심을 끈 부분은 바로 첫 공개 때 발견된 문제점이 해결됐는지 여부였다. 삼성전자는 해외 리뷰어가 억지로 보호필름을 뜯어내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보완했다. 굵어도 분리되지 않게 전면 최상단 화면 보호막을 베젤 아래까지 연장해 화면 전체를 덮었다. 또 정교한 이중 구조 힌지를 적용해 반복적으로 접고 펼치더라도 제품이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을 갖췄으며, 추가적으로 힌지 상·하단에 적용한 보호캡 등을 적용해 외부 이물질로부터 제품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록 기자 syr@



IFA 2019에서 삼성전자는 55형부터 98형까지 'QLED 8K' TV 폴 라인업과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를 전시했다.(왼쪽) LG전자는 인공지능 전시존에서 'LG 씽큐 홈'을 선보였다. 사진제공 삼성전자·LG전자



‘삼성 타운’ vs ‘LG 씽큐 홈’ IFA서 ‘AI 라이프’ 총력전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박람회인 IFA 2019가 독일 베를린에서 6일(현지시간) 첫날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최근 전 세계 가전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1939개 업체가 참가했다. 특히 삼성, LG는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홈’ 비전을 소개하는 데 힘을 쏟는다.

삼성전자는 IFA 기간 메세 베를린에 위치한 시티 큐브 베를린에 1만72㎡(약 3050평)의 전시·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삼성 타운’을 조성했다. ▶관련기사 9면

삼성전자는 삼성 타운 정중앙에 스마트홈 비전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이 삼성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스마트 싱스와 스마트 기기의 연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카메라·센서 등을 통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도 자녀들이 위험한 곳에 접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55형부터 98형까지 8K QLED(양자점 발광다이오드) TV 풀라인업도 전시한다. 입력되는 영상의 화질에 상관없이 8K 수준으로 변환해 주는 화질 엔진 ‘퀀텀 프로세서 AI’를 통해 8K TV 대세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또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

(BESPOKE)와 빌트인 오븐 신제품을 선보이며 유럽 빌트인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가전뿐만 갤럭시 A 시리즈 최초의 5G 스마트폰인 갤럭시 A90 5G와 5G 통합칩셋 엑시노스 980 등 혁신 제품을 통해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 리더십을 확보한다.

LG전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a Better Life)’이란 주제로 3799㎡(약 1149평)의 단독 전시관을 마련했다. 전시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LG 씽큐 홈’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전시해 스마트홈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준다.

가전에서는 88형 8K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가 대표선수다. 올레드 TV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TV는 독자 개발한 화질 칩에 딥러닝 기술을 더한 2세대 인공지능 알파9 8K 프로세서를 적용해 화질을 알아서 최적화한다.

초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를 알리기 위해 이탈리아 유명 건축가와 함께 조성한 LG 시그니처 부스도 선보인다. 무한(Infinithy)이 주제인 LG 시그니처 전시장은 만화경 안의 모습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육각 형상으로 LG 시그니처를 표현했다. 베를린(독일)=한영대 기자 yeongdai@

국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2기 강원랜드 시민참여혁신단 모집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혁신을 추진하고자 제2기 강원랜드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합니다.

강원랜드는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겠습니다.



작은 식당 운영 프로젝트, 주민주도의 좋은 마을 만들기,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 노인·청년·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청소년 예외탐방과 선상학교 참가, 멘토링 장학제도, 진배 어르신 생활지원, 문화예술 나눔 실천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집요강	
모집규모	120명 내외 / 5개 분야
접수기간	2019. 8. 23(금) ~ 9. 19(목) / 4주간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csv@kangwonland.com) ※ 제출서류는 강원랜드 홈페이지(kangwonland.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선정방법	서류전형
결과발표	2019. 9. 30(월) / 선정되신 분에게 개별 통보
운영기간	발대식으로 부터 1년(발대식 10월 예정)
활동내용	오프라인 회의 참석, 온라인 의견 수렴 등
활동혜택	·회의 참석 시 참석수당 등 제공 ·우수 단원 선정 시 별도 시상 ·시설견학,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 참석수당, 부상 등에 대한 자세한공과본인 부담

모집분야별 대상·역할·인원				
근로혁신단	분야	대상	역할	인원
	1. 지역경제공헌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만19세 이상	각 분야별 사업의 계획수립, 추진, 평가,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20명 내외
	2. 일자리창출			20명 내외
	3. 사회적약자지원	국민		20명 내외
	4. 청년혁신단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미래방향 설정 및 혁신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	30명 내외
5. 내부혁신단	강원랜드 임직원	내부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등	30명 내외	
※ 공모 결과에 따라 분야별 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강원랜드 사회적가치기획팀 (033-590-3577) 문의가능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및 주말·공휴일 제외)		
유의사항		·지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제출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 및 적격자 미달 시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만 선발하며, 필요 시 추가모집 할 수 있습니다.		

경상 흑자 69.5억 달러… 상품수지 흑자 43% ‘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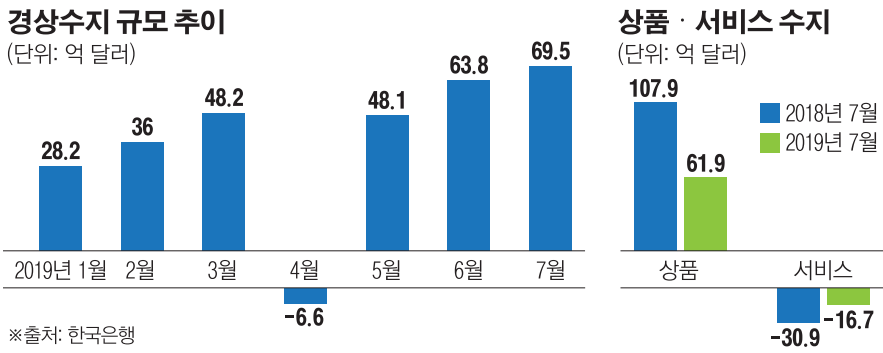
대기업 해외 잉여금 회수에 본원소득수지 흑자폭 ‘역대 최고’
반도체·석유류 부진에 수출 11%↓ …여행·운송수지 적자 개선

경상수지 흑자폭이 70억 달러에 육박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부 대기업이 해외법인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회수 하면서 본원소득수지 흑자폭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관광객 증가와 운임단가 하락으로 여행 및 운송수지 적자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반도체와 석유류 단가하락 등으로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상품수지 흑자 축소세는 여전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중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9억5000만 달러로 작년 10월 93억5000만 달러 흑자 이후 최고치였다.

부문별로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107억9000만 달러) 대비 42.7% 감소한 61억9000만 달러였다. 수출은 10.9% 감소한 482억6000만 달러, 수입은 3.0% 줄어든 420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월 30억 9000만 달러에서 16억7000만 달러로 축소됐다.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원유가 하락에 운임단가가 줄고 이동량이 감소하면서 운송수지 적자폭은 전년 동기 5억6000만 달러에서 3억6000만 달러로 줄었다. 여행수지 적자도 같은 기간 14억9000만



달러에서 11억8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출국자 수는 5.9% 증가한 264만3000명을 기록한 반면 입국자 수는 15.4% 늘어난 144만8000명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인(유커)은 26.5% 늘어난 51만9000명, 일본인은 19.2% 증가한 27만5000명이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30억 달러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 1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직전 최고치는 2015년 1월 기록한 28억 8000만 달러였다. 일부 대기업들에서 배당수입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데다, 특정 기업이 그간 쌓은 해외법인 이익잉여금을 회수한 때문이다. 최근 해외채권투자가

늘면서 이자소득이 11억5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박동준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상품수지는 최근 흐름을 지속했다. 반도체 및 석유류 단가하락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더 줄었다. 수입에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늘어 원자재 감소분을 만회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줄고, 본원소득수지 흑자폭은 이례적 요인에 크게 늘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당초 예상 60억 달러보다 10억 달러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매월 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 한은의 올 전망치 59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며 “통관수출이 감소해 8월 흑자 규모는 7월보다 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홍남기, 러시아 부총리와 회담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제5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극동연방대학에서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의원 비급여 진료비 ‘들쭉날쭉’ 후각검사 6배·무좀치료 5배 差

복지부 ‘비급여 표본조사’
갑상선 초음파검사 4배 차이

의원 간 후각기능 검사비용 차이가 최대 5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비용은 최고금액이 평균금액의 5배를 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5월 27일부터 2주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5일 발표했다.

비급여 비용은 큰 편차를 보였다. 의원은 후각기능(인지·역치) 검사비용이 최저 5000원, 최고 27만 원이었다. 평균금액 (4만2789원)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6.3배에 달했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도 검사비용이 평균 4만5505원, 최고 2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차이가 났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

료 (5.3배)와 체외충격파치료 (3.9배)도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치과의원광증합형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충치면 범위, 치아 부위·상태, 난이도에 따라 가격 차가 컸다. 마모에 대해선 평균 7만2792원, 최고 25만 원으로 3.4배 차이가 났고, 파절 등은 평균 14만996원, 최고금액 45만 원으로 3.2배 차이를 보였다.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치아 개수에 따라 평균 24만8351원, 최고 150만 원으로 6배 차이가 났다.

한의원은 기관 간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추나요법 단순·복잡·특수의 최저금액이 1만 원으로 같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2.5~2.9배로 유사했다.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별도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6~7배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총수家, 지분 4%로 그룹 지배…SK 총수 지분율 0.5%

공정위, 대기업 주식소유현황 공개… 삼성 0.9%

대기업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지배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의 총수 지분율은 0.5%로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5일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2103곳의 주식소유현황을 5일 공개했다.

총수 있는 집단은 51개, 총수 없는 집단은 8개였다.

51개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감소했으나 50%대의 높은 지분율을 유지했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액면가 기준) 중 동일인(총수)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임원·계열회사·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57.5%의 내부지분율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9%(총수 1.9%·2세 0.8% 등)로 조사됐다. 계열회사는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

은 56.9%이며 총수의 내부지분율은 0.9%(총수일가 2.4%)에 불과했다.

10대 집단 가운데 총수 내부지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SK로 0.5%였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의 경우 0.9%에 그쳤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수는 13개로 전년(41개)보다 대폭 감소했다. 삼성, 현대중공업, 영풍, HDC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태광은 2개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51개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19개로 전년보다 12곳 감소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 등 순이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K5·K7·티볼리 등 車 6종 2만5633대 ‘리콜’

엔진·브레이크 등 결함

기아자동차 K7·K5, 쌍용자동차 티볼리 등 국내 인기 차량이 대거 리콜(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엔진, 브레이크 등의 고장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6개 차종 2만56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K7(YG) 차량에선 엔진 내부 실린더에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에서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볼의 제조불량으로 연료가 과분사돼 시동지연이나 울컥거림, 주행 중 간헐적인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또 K5(JF) 차량에선 진공펌프 브레이크 호스 연결부위가 손상돼 브레이크 부스터(제동력을 증대시키는 배력장치)의 작동압이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의 무거움과 제동성능 저하가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6일부터 기아자동차 AUTO Q(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

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쌍용 티볼리 차량 4494대는 정차 후 출발 시 비정상적인 신호로 점화 시기가 지연돼 출발지연 현상 등이 발생했다. 코란도 51대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을 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6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 퓨전(Fusion) 등 2개 차종 1002대는 운전석 및 조수석 좌석의 안전벨트 결함으로 차량 충돌 시 승객의 신체를 단단히 잡아주지 못해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6일부터 포드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공식 딜러 정비공장 및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물산업클러스터, 네덜란드와 첫 업무협약

“기술개발 뒤 해외시장 진출”

정부가 물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물산업클러스터와 네덜란드 물산업연맹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환경공단은 6일 대구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네덜란드 물산업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4일 개소한 물산업클러스터가 외국의

물 분야 전문가관과 맺는 첫 업무협약이다. 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대 14만5000㎡의 부지에 시험·연구시설, 실증화시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을 조성해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일괄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이다.

네덜란드 물산업연맹은 물 산업 관련 해외협력을 대표하는 민간 협력기관이다.

두 기관은 물 분야와 관련한 기술개발 정보교환, 국제 협력관계 구축·연계 강화, 기술인증·인적교류 확대, 국제 홍보·마케팅 상호지원,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 프로그램, 중소기업 사업지원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네덜란드의 물산업 분야 대표기관인 물산업연맹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은 우리 물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오늘 ‘조국 청문회’… 결과 따라 與野 한쪽은 치명상

법사위, 노환중·장영표 등 11명 증인 채택… 출석은 미지수
가족은 모두 제외… ‘딸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 막판 변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린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여당은 ‘조국 지키기’에 나섰고, 야당은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초 2, 3일 열 예정이었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기싸움 끝에 하루짜리로 쪼그라들었다. 한국당 내부 반발로 무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채택 안건 등을 의결함에 따라 어렵사리 일단락됐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총 11명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과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증인 면면을 보면 조 후보자 딸 입시 의혹 관련 증인이 6명, 사모펀드 관련 증인이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이 2명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에게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조 후보자 가족은 전원 빠졌다.

이번 청문회는 향후 정국 주도권과도 직결돼 있어 여야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낙마 시 사법개혁과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다. 한국당 역시 조국 낙마에 실패하면 현 지도부의 리더십에 자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사퇴 선고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단단히 버리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스모킹 건’과 같은 결정적 증거를 내세워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관련 항의차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충공세를 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막판 변수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압박한 사실마저 드러났다”면서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위법, 위선 등을 총

정리해서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드리는 사퇴 선고 청문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임명에 이를 수 있도록 ‘엄호’하는 데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에 나온 의혹 제기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풀려진 사실이나 가짜뉴스에는

바로바로 문제를 제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본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문 대통령 “메콩강의 기적 기대”

“인프라 구축 지원… 농업·ICT 등 협력 강화할 것”

한-라오스 정상회담

라오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은 메콩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길 바라며,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다.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과 ‘지속 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비엔티안시 메콩강변에서 분냥 보라쉴 대통령과 함께 가진 식수 행사에서 “오늘 메콩 국가들과 함께할 세 가지 공동번영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이카(KOICA)를 중심으로 농촌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또 미래 인재양성과 성장의 비전을 나누며, 기술공유를 통한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도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메콩강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지켜내고 메콩의 풍부한 생명 자원을 바이오·의료와 같은 녹색성장으로 연결할 때 지속가

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은 메콩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할 것이며 산림 보존, 수자원 관리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메콩 국가들 사이의 도로·교량·철도·항만 건설을 지원하고, 연계성 강화에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은 메콩 국가들과 인프라 구축, 농업과 ICT 협력, 인적 자원 개발의 기반 위에 인적 교류와 문화관광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3개국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 방문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분냥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수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아세안 및 한·메콩 관계 도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세 모녀 사건’ 더 이상 없도록…

450만 위기가구 찾아 ‘돌봄 서비스’

읍·면·동 보건·복지팀 조기 설치

450만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기획조사가 정례화한다. 정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충원 계획을 앞당겨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상담·신청 기능을 강화한다.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6월 기준으로 보건·복지팀 설치율은 76.2%다.

‘복지멤버십’ 도입도 2022년 4월에서 2021년 9월로 앞당긴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들에게 신청 가능한 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접수받는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위해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참다한홍삼

추·석·맞·이

할인 대전

2019.8.23~9.23

구매 금액대별 할인

5% 할인

15만원 이상 구매시

5+1

홍삼정 마일드스틱

-55,000원 49,500원

10% 할인

30만원 이상 구매시

5+1

클래식

-55,000원 49,500원

15% 할인

60만원 이상 구매시

5+1

홍삼 절편 (120g)

-55,000원 49,500원

20% 할인

200만원 이상 구매시

• 은, 오프라인 동시진행 • 5+1제품은 금액별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복수구매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고객상담번호(1661-0308) www.chamdahan.com

홍콩 송환법 철회 용인... 美와 10월 무역협상 잔치 앞둔 시진핑 ‘꼬인 매듭’ 풀다

건국 70주년 행사 성공 위해 ‘율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1일 건국 70주년 기념일 축하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면치레에 나섰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 합의와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공식 철회가 그 방증이다. 그동안은 명분을 추구하는 강경일변도였다면 최근엔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는 평가다.

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이날 미국 측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10월 초 워싱턴D.C.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국은 이날 초 고위급 협상을 개최하려 했으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결국 1개월 뒤로 미루게 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소비재를 중심으로 1120억 달러(약 13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75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 중 일부에 5~10% 관세를 발효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월에 협상을 재개했다가 자칫 결렬돼 미중 마찰이 더 악화하는 사태를 피하고자 중국 지도부가 미국 측에 협상을 연기하자는 의사를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적십자 전국대표대회에서 환호하는 시민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스

전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 시위가 3개월간 이어지도록 방관만 하던 홍콩 행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도 시 주석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콩 최고지도자인 캐리 램 행정장관은 전날 밤 TV 대국민 연설을 통해 격렬한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위대가 요구한 5대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규모 시위를 통한 시민의 호소를 권위적인 중국 중앙정부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례적인 양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닷케이는 올해 여름 중국 베이징 다이허 비밀회의에서 나온 정치 원로들의 우려가 시 주석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베이징 다이허 비밀회의에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 총리를 지낸 주룽지과 원자바오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텐안문 사태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홍콩 조기 진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을 것이라고 닷케이는 전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 중국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 이에 시 주석은 건국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실리를 취하고자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결정에 글로벌 금융시장도 환호했다. 이날 일본증시 닷케이225지수가 2% 급등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다만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10월 미중 무역협상도 미묘한 시기에 열리게 된다. CNBC방송은 트럼프가 오는 10월 1일부터 현재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고위급 협의가 관세 인상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같은 날 국경절 축하행사가 중국에서 성대하게 치러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실제로 행동에 나서면 찬물을 끼얹게 되는 셈이다. 또 홍콩에서 시위가 계속되면 시 주석은 ‘무력’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조슈아 왕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홍콩 시위를 지지해달라고 공개서한을 보냈다. EPA연합뉴스

〈홍콩 ‘우산 혁명’ 주역〉

조슈아 왕 “도와줘, 메르켈!”

방중 앞둔 獨 총리에 ‘홍콩시위 지지호소’ 서한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어 온 조슈아 왕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중국 방문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SOS’를 날렸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왕은 메르켈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홍콩의 암울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우리의 요구 사항을 중국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메르켈 총리는 5일부터 사흘간 대규모 기업 사절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은 독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다.

왕은 공개 서한에서 메르켈 총리의 성장 환경을 언급하며 “메르켈 총리, 당신은 동독이라는 공산 국가에서 자라 독재 정부의 두려움을 직접 경험했다”면서 “1980년대 독일은 전체주의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정적인 독재 정권에 맞섰던 용기와 결단을 보여 달라”며 중국 공산주의에 맞서는 홍콩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왕은 또 메르켈에게 중국과 우호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중국

은 국제법을 따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약속을 깨고 있다”며 “독일은 중국과 사업을 하기 전에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개 서한은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철회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보내졌다고 CNN은 설명했다.

스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공개 서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메르켈이 왕에 대한 지지를 보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다.

한편, 2014년 ‘우산 혁명’의 주역이기도 한 왕은 지난달 30일 홍콩 시위를 조직하고 시민들을 선동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홍콩 시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홍콩은 중국 공산당에 겁먹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고, 3일엔 대만을 방문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주석을 면담하기도 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거 봐, 쉽지 않지?

3일(현지시간)과 4일 이를 연속 하원 표결에서 고배를 마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전용차에 올라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존슨의 완패를 지켜본 뒤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의회를 떠나고 있다. 메이 전 총리도 2년 전 브렉시트 방안을 놓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회 해산과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퇴로 이어졌다. 런던/로이터-AFP연합뉴스

〈영국 총리〉

‘노 딜’·‘조기총선’ 불발... 코너 몰린 존슨

英 하원표결서 패하며 리더십 치명상... 의회 공방 계속될 듯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취임 6주 만에 코너에 몰렸다. 최근 이들 새 영국 하원 표결에서 세 차례나 패하면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일단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에선 멀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연기를 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법안은 찬성 327, 반대 299로 통과됐다. 10월 19일까지 새로운 브렉시트 방안이 영국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10월 말에서 2020년 1월 말로 연기를 EU에 신청하도록 정부에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다시 논의돼 수정을 거쳐 하원의 승인을 받고, 여

왕의 재가까지 떨어지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노 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이 통과되자 존슨 총리는 즉각 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 개최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고, 10월 15일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10월 31일에 EU를 떠날 것”이라며 “국민의 신의를 문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기 총선 동의안은 298 대 56으로 부결됐다. 의회법상 조기 총선을 하려면 하원 전체 650석의 3분의 2인 434명이 동의해야 하지만 야당 의원 대부분이 기권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당수는 “이번 총선 제안은 백설공주에게 건네진 독이 든 사과 같은 것이다. 총리가 제안한 건 사

과도 총선도 아니고, 합의 없는 이탈이라는 독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예정대로 10월 말 EU를 떠나겠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와 의회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정을 잘 아는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존슨 총리가 9일 총선 개최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의 비공개 회의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유일한 길은 의회 해산과 총선인 이상 선거 캠페인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존슨 총리의 계획은 큰 도박이다. 2년 전 당시 테리사 메이 총리도 압승을 기대하고 의회 해산과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과반 의석을 잃고 영국을 전례없는 정치 혼란에 빠뜨렸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애플, 2년 만에 채권시장 컴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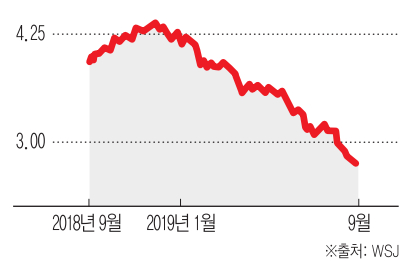
美기업, 저금리 기조에 회사채 발행 러시

‘현금 부자’ 애플이 2년 만에 채권 시장에 돌아왔다. 최근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201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회사채를 발행했다. 만기가 다른 5종의 회사채 70억 달러(약 8조4308억 원)어치를 내놨는데, 3년 만기 회사채 10억 달러어치는 0.35%에, 30년물 15억 달러어치는 1.03%에 각각 발행했다. 원래 책정한 쿠폰 금리는 0.55%와 1.25%였으나 반응이 좋아 더 낮아졌다. 세계 최대 농기계 업체인 디어엔코와 월트디즈니도 이날 금리 3% 미만의 30년 만기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코카콜라도 2017년 5월 이후 처음 회사채 발행에 동참했다. 15개 이상의 기업이 이날 300억 달러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전날에도 21개 기업이 280억 달러어치의 회사채를 팔았다.

수중에 현금이 풍부한 기업들이 이처럼 회사채 발행에 몰리는 건 국제 금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미 국제 10년물 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1.47%까지 떨어

미국 회사채 금리 추이
(단위 : %)



졌다.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들은 낮은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년 만에 회사채 발행에 나선 디즈니의 2046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3.3%에서 2.83%까지 떨어졌다.

애플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 개혁 이후 채권 발행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세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환류할 때의 비용이 낮아져 굳이 회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애플 수종의 현금 및 유가증권은 6월 말 시점에 2000억 달러가 넘는다. 애플은 주주환원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4월에는 총 750억 달러어치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추가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자사주 매입, 배당금 지급, 인수 합병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58
58th ANNIVERSARY

사장님! BOX를 여십시오 기업, 해볼 만하실 겁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없이
사업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BOX와 함께라면
기업, 해볼 만하실 겁니다

Total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BOX



BOX(Business Operation eXpert)란? 대한민국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핵심 경영지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BOX의 12가지 솔루션

대출 | 온라인 완결형 대출 지원
정책자금 | 정책자금 정보 제공 및 맞춤 추천
판로개척 | 해외바이어 매칭, 해외기업 정보 제공
기업부동산 | 기업부동산 실거래, 매물정보 제공

쇼핑물관리 | 온라인셀러의 주문/매출 관리
생산자네트워크 | 아이디어 보유기업과 공장 연결
채용 | 구인구직 등록 및 채용정보 제공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결제

거래처모니터링 | 거래처 리스크 예측정보 제공
회계 | 재고, 생산, 회계 등 ERP시스템 지원
교육 | 기업 임직원 맞춤형 교육 지원
자재구매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4126호(2019.08.22) 게시기한: (2020.08.22)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위반 신고센터 ☎02-729-7490 또는 e-mail: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이사장 권한 더 강해져”… 제왕적 집권 우려 증폭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정치권 ‘입법 물밑접촉’ 의혹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최근 정치권과 접촉한 이후 금고 이사장들의 연임 제한이 완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가오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이사장들은 최장 16년간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사장의 갑질이나 불법 등의 횡포가 여전히 남았는데도 되레 이사장 임기만 늘어나 ‘새마을금고 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은 “이사장 권한이 더 막강해진다”며 반발했고, 노조는 장외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차훈 회장은 2일 이채의 자유한국당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다. 상임위 간사와 원내대표와 회동한 것을 두고 박 회장이 이사장들의 연임 제한을 풀기 위해 정치권에 입법 로비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한국당 한 관

‘상위기관’ 행안위 의원 접촉 늘어 이후 ‘연임제한 완화’ 법안 발의

박 회장 “인사 차원 만나는 자리” 행안위 의원 “연임 얘기 나와”

노조, 법안 저지 장외투쟁 예고

계자는 “그 자리에 직접 간 것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 제한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촉구해달라는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들어서 부쩍 행안위 위원들과 자주 접촉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한 관계자도 “한 달 전부터 박 회장이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만나고 있었다. 주로 이사장 연임에 관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박 회장이 국회에 자주 다녀간 뒤, 이사장 연임 제한을 풀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행안위 위원장인 전해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표 발의한 법안

새마을금고 일부 개정안

기존

제20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

제20조(임원의 임기)
신설)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총회의 의결이 있을시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을 보면 ‘제20조 임원의 임기’를 개정해 총회 의결이 있을 시 1회에 한정해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들은 최장 16년 동안 재임이 가능하게 된다.

박 회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과는 인사차 만나는 자리였다”라면서 법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박 회장은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협과 산림조합은 임기 제한이 없는데, (새마을금고만) 일관성

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만 얘기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 폐지는 박 회장의 당선 공약 중 하나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사장들의 폐단이 심해지면서 마련된 일종의 견제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형평성을 이유로 연임 제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유사한 협동조합인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연임 제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해 8월 오세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푸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의결조차 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의 반발이 컸고, 이 때문에 행안위 내부에서도 의원들의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위원장 이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는데, 우리 쪽에선 강하게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해숙 의원이 새마을금고법을 새로 발의하면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이사장의 임기 제한 폐지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9월 국회에선 의원들의 의지가 많이 떨어질 시기”라며 “특히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날치기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희동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위원장은 “이사장들의 권력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노조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찬산 기자 jinsan@

농협금융, 상반기 해외 점포 순익 200억

“올해 글로벌 사업 2기 원년”… 미얀마·베트남 등 신남방 IB 가속

농협금융이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200억 원의 순익을 거뒀다. 하반기엔 미얀마, 베트남 등 신남방 투자은행(IB) 시장 공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사업전략부문장 주제로 은행, 보험 등 주요 계열사 글로벌 임원이 모인 가운데 ‘2차 글로벌전략 협의회’를 열었다.

손병한 사업전략부문장은 “올해는 농협금융의 글로벌 사업 2기 원년”이라며

“하반기에도 기존 중장기 전략(해외 순익 1000억 원)에 기반해 압축성장 로드맵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의 상반기 해외점포 순익은 약 200억 원을 기록했다. 타 금융그룹과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이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은 인도, 홍콩, 중국, 호주 등에서 해외 점포를 열고 영업 중이다. NH투자증권

은 해외법인인 자본 확충을 통한 사업 내 실화를 하고 있다. 보험·캐피탈·자산운용사 역시 그룹형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반기 중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에서 현지 유수의 파트너와 협력 형태를 통한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금융은 올해 안에 그룹의 중장기 글로벌 IB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글로벌 IB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기업銀, 내달 12일 中企 근로자 위한 콘서트 개최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12일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와 함께하는 IBK 참! 좋은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콘서트에는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안산·인천 지역의 거래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사회 취약계층을 초청한다.

일반 관람객들도 이벤트 응모와 추첨을 통해 콘서트를 볼 수 있다. 관람을 원하는



고객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킹 앱(App) ‘i-ONE(아이원)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응모 기간은 22일까지로, 연령과 대상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안산과 인천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들은 물론 모든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Cloud Center

자동분개

자동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DOUZONE



국내 가전 양대산맥 ‘화두’ 살펴보니

삼성 미래를 디자인하라 LG 어디서든 내집처럼



벤자민 브라운 삼성전자 유럽 총괄 마케팅 담당 상무가 5일(현지시간) IFA 2019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사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어디서든 내집처럼’을 주제로 LG 미래 기술 좌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미래를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박일평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사진제공 각 사

브라운 상무 “혁신 브랜드로서 더 대담하게 향후 50년 준비”

14년 연속 ‘TV 1위’ 위상 강화 8K 생태계 구축에 주력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는 ‘혁신’을 주도하는 브랜드로서 더 대담하게 향후 5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벤자민 브라운 삼성전자 유럽 총괄 마케팅 담당 상무)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9’ 개막에 앞서 하반기 주요 신제품과 서비스를 공개하는 프레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삼성전자 단독 전시장인 시티 큐브 베를린에서 전 세계 미디어·거래선 등 약 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래를 디자인하라(Design Your Tomorrow)’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벤자민 브라운 상무는 콘퍼런스에서 “삼성전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AI(인공지능)·5G(5세대 이동통신)를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 혁신에 나서는 한편 밀레니얼 세대 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이해를 통해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TV 분야에서 계속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든 셰필드 유럽 총괄 TV 담당은 “올해는 삼성전자가 14년 연속 TV 1위를 기록하는 해”라며 “(TV 분야에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디스플레이·콘텐츠 등 기존의 장벽을 뛰어넘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TV 시청 경험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해 ‘8K 협의회(8K Association)’와 함께 8K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현재 8K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라쿠텐 TV 유럽의 하신토 로카 사장은 이날 무대에 올라 “8K 생태계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삼성과 협업해 유럽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홈시네마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스마트 TV에 도입된 아마존 프라임 앱을 통해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의 경기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업체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BESPOKE)를 통해 유럽 빌트인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베를린(독일)=한영대 기자 yeongdai@

박일평 CTO “인공지능 씽큐 모든 IoT 가전에 확대 적용”

패션 스타일 제안 ‘씽큐 핏’ 의류관리 센서 ‘비전 팩’ 공개

LG전자가 인공지능(AI) 사업을 더욱 강화한다. LG의 인공지능 가전 및 서비스를 일컫는 ‘LG 씽큐(ThinQ)’ 범위를 IoT(사물인터넷) 제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일평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사장은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IFA 2019’ 개막에 앞서 ‘어디서든 내 집처럼’이라는 주제로 LG 미래 기술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 사장은 LG전자의 인공지능 전략을 소개하며 “LG의 인공지능 브랜드인 ‘LG 씽큐(ThinQ)’의 적용 제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LG 씽큐가 LG전자의 인공지능 가전 및 서비스를 의미했다면, 재정의되는 LG 씽큐는 IoT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새로운 LG 씽큐로 고객은 제품의 무선 통신 기능을 이용해 원격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 사장은 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자동차와 건물 등 주변의 모든 것이 서로 협업한다며,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해줄 여러 가지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날 처음 공개된 ‘씽큐 핏(ThinQ Fit)’은 3D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신체를 정확히 계측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바타를 생성한다. 사용자는 사이니지, 휴대폰 등에서 아바타를 불러내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혀볼 수 있다.

씽큐 핏과 같이 선보인 이미지 센서 ‘비전 팩(Vision Pack)’에 대해 박 사장은 “예를 들어 비전 팩이 적용된 스타일러는 내부에 걸린 옷을 이미지 센서를 통해 파악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낸다”며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분석해 옷을 최적의 방법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박 사장은 연설 마지막에 올해 IFA에서 주목할 아이템으로 ‘프로액티브 서비스’를 지목했다. 프로액티브 서비스는 LG전자의 인공지능 전략인 진화, 점점, 개방을 접목한 가전 사전관리서비스다. 그는 “프로액티브 서비스를 오픈 솔루션으로 확대해 더 많은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가전박람회 IFA 2019에서 인공지능 전시존인 LG 씽큐 홈을 마련해 거실, 서재 등 각종 생활공간 안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배치했다.

베를린(독일)=한영대 기자 yeongdai@

포스코인터, 곡물 사업 확대 미얀마 미곡처리 2공장 준공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한국 최대의 식량 자원 기업’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갔다. 미얀마 미곡종합처리장(RPC) 2공장을 준공하며 국제 곡물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4일 미얀마에서 RPC 2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RPC는 에어와디주 곡창지대와 양곤 수출항을 이어주는 뚝데(Twante) 수로변 물류거점에 위치한 연산 8만6000톤 규모의 시설로 بهره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검사, 판매를 일괄 처리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7년 미얀마 양곤 쉐린반(Shwe Lin Ban)공단 내 위치한 연산 1만5000톤 규모의 첫 번째 RPC를 인수하며 미얀마 시장 개방 초기부터 원료 수급과 건설 부지 확보 등 곡물 사업을 준비해왔다.

두 번째 RPC가 본격 가동되면서 포스코의 100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식량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식량 트레이딩뿐 아니라 미얀마 RPC,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인도네시아 오일팜 등 투자를 확대해 농장-가공-물류 인프라에 이르는 식량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안현호 신임 KAI 사장 “수출 확대·신사업 앞장”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사장으로 공식 취임한 안현호(사진)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KAI는 5일 오전 9시 경남 사천 본사에서 임시주추종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안현호 내정자를 제7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안 사장은 중앙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행정고시(25회)에 합격하며 공직생활을 시작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제실장과 제1차관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을 지냈다.

안 사장은 취임사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로 KAI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출 확대와 신사업 개척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항공기 마케팅 활동 강화와 원가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개발 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국지엠, 수입차협회 등록

한국지엠(GM)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정식 회원이 됐다.

5일 KAIDA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수입차협회 공식 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달 4일 “국내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 위상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KAIDA에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차를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기만 하면 KAIDA 회원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신청서 제출과 이사회 동의, 협회비 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면 최종 회원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이보다 강력한 SUV 라인업 없었다” 현대·기아차, 美 8월 판매 두자릿수 ↑

SUV 판매 호조에 힘입어 현대·기아차 동차의 지난달 미국 판매가 각각 전년 대비 12%와 13% 증가했다.

4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6만3737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5만6929대)보다 판매량을 12% 끌어올

렸다.

현대차가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 증가를 이어간 건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연속이다. 특히 현대차는 8월 SUV를 3만6347대 판매하며 월간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현지에서 팔린 현대차의 57%를 SUV가 차지했다. 작년 8월의 49%보다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모델별 전월 대비 판매량 증가세를 살펴보면 △코나 34% △투싼 21% △팰리세이드 15% △싼타페 8% 등이다. 랜드 파커 HMA 부사장은 “이토록 강력한 SUV와 대체연료차 라인업이 있었던 적이 없다”면서 “이들 차종의 판매 호조 덕분에 인상적인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의 8월 미국 판매도 6만730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현지 기준 준대형 SUV인 텔루라이드 판매 호조와 스포

티지 판매가 전체 실적 상승을 주도했다.

빌 페퍼 기아차 미국법인 영업마케팅 부사장은 “기아차는 J.D.파워의 품질지수에서 5년 연속 경쟁차를 압도했다”며 “텔루라이드와 스포티지 판매가 주도하는 상승세가 남은 2019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기아차 텔루라이드 판매(6374대)가 현대차 팰리세이드 판매(5115대)를 1259대 앞서면서 양사의 현지 판매 차이도 3007대 차이로 좁혀졌다.

김준형 기자 junior@

“국내 화학소재기업 영세 회사당 매출 OECD 하위권”

국내화학소재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크게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화학소재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위해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

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글로벌 화학소재기업 5379개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OECD 국가 28개국 중 한국의 화학소재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은 3위에 해당했다.

국내 화학소재산업 매출액은 230조 7000억 원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큰 규모를 갖고 있다. 영업이익 역시 17조 6000억 원으로 미국, 일본의 뒤를 이었다.

하지만 기업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해당했다. 국내 화학소재기업 1곳당 매출액은 2486억 원으로 18위에 그쳤고 영업이익은 189억 원으로 21위다.

국내 화학소재기업의 경영실적지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은 7.9%로 20위,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6%로 21위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한국 화학소재기업 부진에 대한 원인을 영세성으로 꼽으며 “국내 화학소재산업 내 기업체 수가 과도하게 많고 기업당 종업원 수는 적은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화학소재기업 수는 928개로 OECD 국가 중 2위이고, 3위 일본보다 2.6배, 9위 미국보다는 8.6배 많았다. 반면, 기업별 종업원 수는 1025명으로 25개국 중 22위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에너지저장장치〉

한화에너지 ‘유럽 최대’ ESS 착공

아일랜드 림클론社와 협력

1300억 투입 태양광 시설 건설

10만 가구 사용 규모 전기 저장

美·유럽 ESS 10배 성장 기대

한화, 3500억 그린본드 발행

한화에너지가 유럽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1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화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한화에너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아일랜드의 림클론에너지(Lumclon Energy)와 함께 아일랜드 코오칼리주(州)에 100MW 규모의 태양광 연계 ESS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아일랜드 전력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에너지와 림클론 에너지가 1억 유로(약 1320억 원)를 투입

해 짓는 ESS 시설은 약 10만 가구가 사용하는 양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현지 개발자와 협업체 개발 진행 중이며, 최근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착공한 ESS 시설이 유럽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규모의 만큼 한화에너지의 유럽 진출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너지는 ESS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아일랜드를 비롯해 영국 등 유럽 국가에 대한 공략을 진행 중이다.

유럽은 EU 등 각국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에 따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화석 연료 발전 단가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기)에 도달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ESS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형 ESS 프로젝트를 상향수 진행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사업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글로벌 에너지저장 전망’을 통해 2016~2030년 ESS 시장에 10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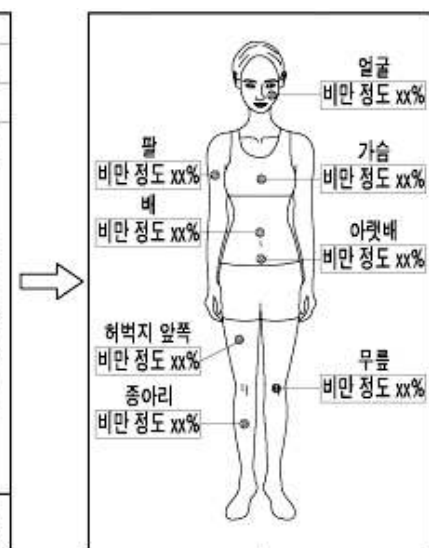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ESS 시장을 주도하는 유럽과 미국 시장은 ESS 시장 규모가 2016년 16억 달러에서 2025년 184억 달러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에너지는 유럽 다른 국가에서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스페인 현지 법인인 한화 에너지 코포레이션 에스파냐(Hanwha Energy Corporation Espana S.L.)를 설립해 현지 개발 역량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화에너지는 그룹 계열사 최초로 3억 달러(약 3500억 원) 규모 해외 공모방식의 그린본드를 지난 7월 발행하며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공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린본드는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돼 유통되는 국제채권으로, 발행자금의 용도가 신재생 에너지, 전기자 등의 친환경 투자로 한정돼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LG전자가 출원한 ‘뷰티 카운슬링’ 관련 이미지. 사용자의 평소 사진을 분석해 부위별 비만도와 피부 노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 특허청

스마트폰으로 피부 노화 체크

LG 뷰티 카운슬링 특허 인공지능, 사용자 사진 분석 비만도 따른 식단·운동 추천

앞으로는 비만도와 피부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병원을 찾거나 별도의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인공지능(AI)이 사용자의 비만 정도와 피부 상태를 진단해 주는 기술이 나왔다.

5일 관련업체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특허청에 ‘뷰티 카운슬링 정보 제공 방법 및 장치’ 특허를 출원했다.

기존에 비만이나 피부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선 직접 사용자와 접촉하는 기기 등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진단 정확도가 높지 않고 측정할 때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었다.

LG전자의 이번 특허는 사용자가 촬영해 저장하고 있는 사진을 인공지

능이 분석해 신체 특징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뷰티 카운슬링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뷰티 카운슬링 정보는 과거보다 몇 kg 살이 찘다는 등의 비만 정도에 대한 수치와 더불어 비만도가 더 높아질 경우의 신체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 또 과거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인다는 내용의 피부 노화 정도에 대한 수치와 미래 얼굴 이미지 등을 제공한다. 비만 정도 및 피부 상태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 정보와 식단 정보도 추천할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 및 관리의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항목 중 하나”라며 “이번 기술은 지속적인 비만 및 피부 관리를 유도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비만 등의 측정 시 사용자에게 불편감을 주는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기아차 신형 모하비 출시…사전계약 7000대

기아자동차가 5일 대형 SUV ‘모하비 더 마스터’〈사진〉를 공식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사전계약을 시작한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7000대의 계약 대수를 기록했다. 사전계약 결과 고객 90%가 고급 편의사양을 갖춘 상위 트림 ‘마스터즈’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 SUV인 모하비 더 마스터는 전장 4930mm, 전폭 1920mm, 전고 1790mm(루프랙 제외 시 1765mm), 휠베이스 2895mm의 차체 크기를 기반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외장 색상은 △스노 화이트 펄 △오로라 블랙펄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등 인기 색상과 △스틸 그레이 △리치 에스프레소 등 신규 색상을 포함해 총 5종으로 운영된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국산 동급 유일 V6 3.0 디젤 엔진을 얹어 최고출력 260 PS, 최대토크 57.1 kgf·m의 힘을 낸다. 8단



자동변속기를 맞물렸고 복합연비 9.4 km / l (18인치 타이어 기준)를 달성했다.

기아차는 모하비 더 마스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등 첨단 사양을 기본으로 넣었다. 판매가격은 플래티엄 트림 4700만 원, 마스터즈 트림 5160만 원부터다.

유창욱 기자 woogi@

인천공항 서비스 국제인증 ACI 고객경험 2단계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공항협회의 시상식에서 ‘고객경험인증제’ 2단계 인증패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ACI 고객경험인증제’는 최근 고객 경험 관리가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전 세계 공항의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표준화하

기 위해 올 4월 국제공항협회의에서 신규 제정한 제도다. 최고 5단계 인증까지 존재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공항 운영에 있어 고도화된 고객 경험 관리체계를 필요로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에 1~2단계 인증을 동시에 획득해 현재 받을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인증을 획득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2단계 인증을 시작으로 연내에 3단계 인증을 획득하고, 2021년까지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5단계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김문호 기자 kmh@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 ❧ 고열량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 ❧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올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자음보액 | 건강한 갱년기 관리가 필요한 여성분께 메타그린 | 식습관과 체지방 관리가 필요한 분께 명작수 | 프리미엄 홍삼의 특별함을 전하고 싶은 부모님께

제품상담 080-023-5454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5개월 만에 재등장한 ‘갤폴드’… 이통사 가입전쟁

이통3사 예약 판매 돌입

이동통신 3사가 5일부터 세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5G’의 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폴드 5G는 512GB 용량의 단일 모델로 코스모스 블랙과 스페이스 실버 총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폴드 5G는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펼쳤을 때 7.3인치, 접었을 때는 4.6인치 크기다. 특히 폴더플 특성을 살려 접었을 때도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을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 연속성’ 기능이 특징이다. 갤럭시 폴드 5G 구성품에는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Galaxy Buds)’와 ‘슬림 커버’가 기본으로 포함된다.

통신사들은 프라이텀급 스마트폰 수요 고객을 타깃으로 다양한 혜택을 앞세워 가입자 유치에 나선다.

5G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선 SK텔레콤은 갤럭시 폴드 출시를 통해 130만 가입자를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SK텔레콤은

SKT ‘찾아가는 개통’ 서비스

제휴카드로 최대 50만원 할인

KT, 12개월 무이자 할부 실시

몽블랑 케이스 등 사은품

LG U+, 코엑스 ‘U+브랜드관’

개통 고객 100명 초청 행사

‘오늘도착’, ‘찾아가는 개통’ 서비스를 운영한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를 방문해 개통 및 데이터 이전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T월드 다이렉트에서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오늘도착은 8월 수도권뿐만 아니라 5대 광역시까지 서비스를 확장, 전국 각지에서 갤럭시 폴드 5G의 가장 빠른 가입과 개통을 경험할 수 있다.

SK텔레콤 고객은 ‘더블할인’으로 최고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T삼성카드



SK텔레콤 모델이 ‘갤럭시 폴드 5G’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2V2’로 전월 70만 원 이상 이용하면 2개월간 통신비 월 2만 원, 최대 48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KB T프리미엄 카드’로 통신비를 자동납부하고 카드 전월 실적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2개월간 통신

비 월 2만1000원, 최대 50만4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중복 적용 가능하다.

KT는 9월 한 달간 갤럭시 폴드 5G를 개통한 고객 전원에게 사은품으로 몽블랑 케

이스를 제공한다. 삼성 멤버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면 사은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숍에서 갤럭시 폴드 5G를 구매한 고객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구매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 시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삼성전자 정품 보조배터리 및 케이블 등의 혜택을 받는다. KT 제휴카드 프로그램 ‘카드 더블할인 플랜’과 ‘5G 프리미엄 가족 결합’ 프로모션으로 갤럭시 폴드 5G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선 KT 제휴카드 ‘슈퍼DC2 현대카드’와 ‘CEO 우리BC카드’를 각각 전월 실적 10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월 3만 원씩 최대 월 6만 원을 24개월간 할인받을 수 있다. KT ‘5G 프리미엄 가족결합’ 프로모션으로 5G 무제한 요금 가족 2명이면 선택 약정 25%에 추가 결합할인 25%를 더해 총 5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폴드 출시를 기념해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U+브랜드관’에서 개통 고객 100명을 초대해 행사를 진행한다.

김범근 기자 nova@

삼성SDS-LG CNS, 나란히 AI신기술 발표

삼성SDS, 글로벌 이커머스 물류 특화 플랫폼 ‘첼로스퀘어’ 공개
LG CNS, 인공지능 자연어 이해 표준데이터 10만 개 무료 개방

국내 주요 시스템통합(SI) 업체인 삼성SDS와 LG CNS가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등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삼성SDS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으로 물류 상황 분석에 이용했고, LG CNS는 자연어 처리 축적 데이터를 배포해 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나섰다.

5일 삼성SDS는 ‘첼로 테크페어(Cello Tech Fair) 2019’ 행사에서 글로벌 이커머스(e-Commerce·전자상거래) 사업자와 물류 협력 확대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공개했다.

삼성SDS의 첼로스퀘어는 글로벌 물류 운영 노하우와 AI, 블록체인 등 최신 IT기술을 집목한 글로벌 이커머스 물류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삼성SDS의 빅데이터 분

석 플랫폼 브라이틱스 AI(Brightics AI)가 내제된 첼로(Cello) 플랫폼으로 항만 혼잡도를 분석해 선박 도착 예정일을 화주에게 제공함으로써 내륙운송과 원활하게 연계해준다.

의류 전문 쇼핑몰 피피비스튜디오는 첼로 플랫폼의 인공지능으로 확보한 선박 일정을 연계해 배송 상품명, 주문수량 등의 주문정보 입력과 지역별 최적 배송사 선정을 자동화해 물류 업무를 효율화한 사례를 공개했다.

LG CNS는 인공지능(AI)의 자연어 이해를 위한 한국어 표준데이터 10만여 개를 제작해 업계에 무료로 개방했다. 언어 AI 개발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와 유사한 개념인 AI 학습용 표준데이

터가 필요하다. 해외는 미국 스탠퍼드대학,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제작한 영문 표준데이터가 존재해 AI 개발에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는 한국어 표준데이터가 없어 영문을 번역하거나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LG CNS는 지난해 12월 위키백과 정보를 기반으로 AI 학습용 한국어 표준데이터 7만 개가 탑재된 ‘코워드 1.0’을 제작해 AI 업계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엔 공개한 ‘코워드 2.0’은 한국어 표준데이터를 7만 개에서 10만 개로 확대하고, 단답형에서 장문의 답변이 가능한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강화한 버전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특징은?’이라는 질문에 ‘도시 중앙으로 한강이 흐르고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등의 여러 산들로 둘러싸인…’이라는 장문의 답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정동영(왼쪽) 민주평화당 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연대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聯 “10월까지 신당 창당 사회경제적 약자 문제 해결 앞장”

민주평화당과 공동연대 결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가칭)’를 결성하고, 10월 말까지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창당 준비를 선언하며 민주평화당과 공동 연대를 결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은 5일 국회 본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은 공동 연대를 통한 정책 결의를 약속했다. 공동 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먼저 제의한 것으로 민주평화당이 받아들여 이루어졌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정치 참여 선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민주평화당과 연합회는 한국 정치에서 가지 않은 새 길을 가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가 사는 길은 뚝치는 것밖에 없다”며 “약자 동맹으로 사회경제적 약자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상공인들에게 부여된 국민주권을 발휘해 정치적 독립 및 자주성을 이루겠다는 열망을 반영,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창당준비위원회의 표어는 ‘우리도 존재한다’이다. 최 회장은 “창당준비위원회는 상

공인도 존중받는 정책 실현,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경제 제도 마련, 소상공인도 주인 되는 새로운 민생정치의 직접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창당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민주평화당과의 공동 연대에 관해 “적극적인 소상공인 대변 정당으로 거듭날 뜻을 밝힌 정 대표의 진심을 믿고 소상공인 정치 세력화의 외연 확대를 위해 함께 다양하고 끈끈한 공동연대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창당 작업에 전담적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당하는 당과의 합당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대표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앞으로 공동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지역 거점 정당이고, 소상공인 국민행동은 계층 정당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정치사에서 지역 거점 정당과 계층 기반 정당이 손을 잡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 관여 금지와 관련한 정관 사제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정관 변경안에 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김기문 회장, 삼성전자 베트남 박닌 공장 방문

〈중기중앙회〉

“한국형 경제협력 산단 등
신남방정책에 적극 동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김기문 회장과 서병문 수석부회장이 중소기업대표단 20명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 소재 삼성전자 박닌(Bac Ninh) 공장을 방문해 현지 진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현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켄 반 투이(Tran Van Tuy) 베·한의원 친선협회장과 부영 딘 후에(Vuong Dinh Hue) 경제부총리를 통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하노이 삼성전자 박닌 공장은 112만 3966㎡(34만 평) 부지에 △삼성전자 휴대용 △삼성SDI 배터리 △삼성디스플레이 액정 등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의 베트



김기문(오른쪽에서 두 번째) 중기중앙회장이 5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 삼성전자 박닌(Bac Ninh) 공장에서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기중앙회

남 현지 주요 생산 거점이다.

부영 딘 후에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와 켄 반 투이 베·한의원 친선협회장, 파오 응옥 중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의 회의도 열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남방정책의 교두보인 베트남은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시장인 만큼 우호적인 법·제도 마련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K-POP 열풍에 힘입어 한국 상품에 대한 선

호도가 크게 높아져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한국형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상생번영에 기반한 경제협력에 중기중앙회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부영 딘 후에 경제부총리와 켄 반 투이 베·한의원 친선협회장도 “한국 기업들이 사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AK플라자 “서울 상권 지켜라”

지난달 31일 구로 본점 철수
지역 쇼핑몰 AK&으로 재공략
강남·잠실·광명 등 관심
신길뉴타운 출점엔 선 그어

구로 본점 폐점에 따라 서울에서 더 이상 백화점을 운영하지 않게 된 AK플라자가 지역 쇼핑몰인 ‘AK&(앤)’의 추가 출점으로 서울 상권 사수에 나선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최근 서울권에 2곳의 신규 AK&을 내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서울권 추가 출점을 위해 협의 막바지 단계”라면서 “내년쯤에 수도권에 한 곳을 더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K&은 AK플라자의 서브 브랜드로 지역 쇼핑센터인 NSC형(Neighborhood Shopping Center) 쇼핑몰을 표방한다. 지난해 8월 말 홍대 본점을 시작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과 세종 등 현재 3곳을 운영 중이다. 4호점은 2022년 안산으로 예정돼 있다.

AK플라자는 계속된 영업 부진으로 지난달 31일 구로 본점을 철수하면서 서울권 사수를 위해 고심해왔다. 애경그룹은 현재 수원과 분당, 평택, 원주 등에서 총 4곳의 백화점을 운영 중이



AK&(앤) 기흥점.

다. 이대로 서울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아웃렛 오픈 등 서울에서 다양한 신규 사업을 타진해온 AK플라자는 최근 AK&의 추가 출점으로 무게 추를 옮겼다.

우선 주목하는 곳은 서울 강남권이 다. AK는 최근 AK& 출점을 위해 서울 강남과 잠실, 성수 지역을 타진해왔다. 이 밖에 경기도 광명시도 고려 대상이다. 광명에는 이케아를 비롯해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코스트코가 있어 시너지를 내기 좋다. 특히 서울 서남권 상권 재공략을 위해서도 주목하는 곳이다.

AK플라자가 AK&에 주력하는 이유는 사업 안정성 때문이다. AK&은 5000~1만 평 수준으로 백화점과 비교해 영업 면적이 3분의 1가량에 불과해 큰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심지어 점포 자체를 짓거나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는 대신 주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어 투자비 부담도 적다. 세종점은 KT&G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고, 2022년에 오픈하는 안산점 역시 GS건설 소유의 건물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입점 업체에 판매 수익 중 일부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백화점과 달리 주된 수익원은 입점 점포로부터 받는 임대료로 리스크가 적다. 입점만 시키면 크게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란 셈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영등포 신길뉴타운에 AK&을 출점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려가쇼핑센터로 운영되던 이곳을 AK플라자의 관계사인 AK플러스가 작년 말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신길뉴타운의 래미안 영등포프레미뉴와 힐스테이트 클래식안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한다. 사려가쇼핑은 3월 폐점했다.

다만, 신길 지역 출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애경 관계자는 “이 지역은 관계사가 주상복합 건물을 개발하기 위해 매입했다”면서 “현재 AK플라자나 AK&이 들어설 플랜은 없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대웅제약 “美 ITC 감정서 포자 확인”

메디톡스 “자체적 검증으로 말장난”

나보타 ‘균주 분쟁’ 공방 과열

내년 상반기쯤 최종 결론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공방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각자 유리한 입장을 앞다투어 쏟아내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웅제약은 미국 ITC 소송의 감정시험에서도 자사 균주가 명확하게 포자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의 포자 감정시험에서 포자가 나타났다고 발표한 지 6일 만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홀 A 하이퍼(Hall A Hyper) 균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균주의 고유한 특성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다. 즉,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된 Hall A Hyper라면 포자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민사소송에 이어 미국에서 진행 중인 ITC 소송 감정시험에서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재확인하면서 자사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대웅제약의 발표에는 맹점이 있다. 7월 진행된 감정시험은 대웅제약 측 ITC 감정인들이 대웅제약 생산시설에서 사용 중인 균주를 임의로 선정해 실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ITC 소송의 감정시험은 양측이 감정인을 지정해 서로의 균주를 감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ITC 행정 판사는 5월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

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바 있다. 따라서 대웅제약 측 감정인이 균주의 포자 형성을 관찰한 것이 ITC 소송의 핵심 사항은 아니다.

메디톡스는 포자 형성에 관한 대웅제약의 잇따른 발표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는 것은 대웅제약의 자유이지만, ITC 소송의 결론과는 아무 관계없는 말장난일 뿐”이라며 “소송의 본질이 아닌 일부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감정시험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뒤엎을 절호의 카드를 얻은 만큼 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자사 측 ITC 감정인이 포자 형성을 관찰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ITC 규정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메디톡스에 맞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독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ITC에 제소했다. 양 사는 20일까지 ITC에 균주 조사 결과와 관련 허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엘러간에 따르면 ITC의 증거 심리 일정은 11월에서 2020년 2월까지로, 최종 결론은 일러도 내년 상반기쯤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혜은 기자 euna@



차레상, 힘들게 차릴 필요 있나요

이마트가 간편한 명절 준비를 위해 5일부터 18일까지 피코크 제수음식 행사를 실시한다. ‘피코크’ 제수음식 40여 종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2만 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일반적으로 명절 음식은 요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피코크 제수 음식은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을 통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 피코크 모싯알·흰 송편(600g, 6280원), 피코크 순혜네빈대떡(400g, 7480원), 피코크 모듬전(470g, 8880원), 피코크 고기동그랑땡 기획(385g*2, 6980원), 피코크 100% 국내산 당면(400g, 4980원) 등을 판매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미샤, 터키진출 5년 만에 20번째 매장 오픈

상반기 매출 300만 달러 돌파

미샤가 터키에 진출한 지 5년 만에 20호 매장을 열었다.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는 터키 수도인 앙카라의 ‘투날리 힐미(Tunali hilmi) 거리’에 20호점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투날리 힐미는 앙카라 시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쇼핑 거리로 서울의 명동과 같은 곳이다.

오픈 기념행사에는 최흥기 주터키 한국대사와 에이블씨엔씨 해외영업팀 신보운 이사, 현지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립스틱 믹싱 퍼포먼스’ 행사도 큰 관심을 끌었다.

미샤는 2014년 10월 앙카라에 1호점을 오픈하며 터키에 진출했다. 2014년 67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120만 달러, 지난해에는 233만 달러의 매출을 올



터키 수도인 앙카라의 ‘투날리 힐미 거리’에 문 연 미샤 20번째 매장.

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만 달러 매출을 돌파하며 터키 진출 5년 만에 성과를 냈다.

미샤의 터키 총판인 ARS코스메틱 올차이 아르잔(Olcay Arslan) 대표는 “터키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대부분 규모를 축소하거나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미샤만이 유일하게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터키 소비자들은 미샤를 프

리미엄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어 록시땅이나 MAC 등 유명 브랜드와 나란히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블씨엔씨는 터키 내 미샤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7, 8월에만 5개 매장을 새로 열었다. 현재 앙카라, 이스탄불 등 터키 주요 8개 도시에 진출해 있으며, 이번 20호 매장으로 앙카라에서만 7개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최의경 에이블씨엔씨 해외사업부전무는 “유럽과 중동을 잇는 문화적, 지리적 요충지인 만큼 터키 시장에서의 성공은 두 시장 모두를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며 “미샤가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판로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에이블씨엔씨는 현재 전 세계 44개국에서 16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고, 총 3만2000여 개의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160ml ‘초미니’ 사이다 ... 3ℓ ‘초대형’ 맥주잔
음료 트렌드 ‘크저나’ ‘작저나’

용량 양극화로 소비자 마음 잡아
직장인 위한 대용량 커피 출시도

식품업계가 대용량, 소용량 등 제품 용량을 양극화하면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의 ‘호가든’이 3ℓ 짜리 대용량 전용 육각잔(사진)을 내놓아 호응을 얻고 있다. 호가든은 전용 잔에 3분의 2 정도 호가든을 따른 후 병을 잘 흔들어 전용 육각잔에 새겨진 로고의 위치만큼 거품을 내 따라 마시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호가든 전용 육각잔은 SNS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해외 유명 맥주 페스티벌에서나 볼 법한 대용량 전용 잔을 들여와 일부 서울 시내 식음업장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355ml, 500ml 캔 제품만 판매해 온 오비맥주의 발포주 ‘필굿’ 역시 대용량 제품을 내놔다. 필굿 1.6ℓ 제품은 최근 한시작 할인을 실시한 이후 반응이 좋아 9월까지 할인을 한 달 더 연장했다.

RTD(Ready To Drink) 커피 역시 대용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350ml 이상의 커피 음료 출시도 활발해지고 있다.



1.1ℓ 짜리 대용량 RTD 커피인 자렝 시그니처(파우치)는 1월부터 7월까지 8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5% 성장한 수치다. 롯데푸드 파스퇴르 역시 500ml 대용량 커피인 ‘데스크탑 카페’ 2종(에스프레소, 흑당라떼)을 8월 말 선보였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을 위한 가용비(가격대비 용량) 높은 상품이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집과 직장에서의 일상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가 늘면서 대용량 커피 음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가 하면 소용량 제품 매출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160ml 짜리 초미니 음료인 칠성사이다 미니, 펄시 미니, 아이시스 8.0(200ml)은 올해 7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 100%, 330%씩 매출이 뛰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민간기업도 파생지수 개발 가능... 거래소 독점 깨진다

거래소 파생시세 데이터 공개
민간 지수개발 사업 활성화
재산권·사용권 잡음 해소 기대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던 파생지수 개발 사업에 민간기업도 진출할 길이 열린다. 지수 개발을 둘러싼 금융투자업계와 거래소의 잡음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가 파생시세(선물·옵션 가격, 최종 거래 등) 데이터를 민간 지수개발 사업자에게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 지수개발 사업자도 다양한 파생지수와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대표 지수개발 사업자는 한국거래소와 에프앤가이드 두 곳이다. 그러나 코스피200,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 파생지수를 보유 중인 곳은 한국거래소가 유일하다. 파생시세 데이터를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원하는 파생지수를 한국거래소에 요청하면 위탁·개발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재산권과 사용권

한국거래소 대표 선물·옵션지수

선물지수	옵션지수
KRX 300 선물지수	코스피 200 월별 양매도 ATM
코스닥 150 선물지수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
미니 코스피 200 선물지수	코스피 200 고배당 커버드콜 ATM
코스피 200 선물지수	코스피 200 프로텍티브풋
	5% OTM 지수

등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양매도 ETN'을 개발한 한국투자증권도 한국거래소 측에 해당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시했지만 거래소가 개발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수 사용료도 지불해야 했다.

관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신규 파생결합증권(ETN 등)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지수사업자가 거래소 지수에 기반한 상품을 제시해도 재산권이 개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에프앤가이드 관계자는 "파생 관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생지수를 개발하지 못했다"며 "만약 거래소가 시세

를 제공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원하는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채권) 등 파생지수를 개발해 운용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지수개발 사업자에게 시세가 공개되면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등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지수에 기반한 상품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세정보 사업이 한국거래소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해외 사례나 관련 규정, 지수사업자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또 시세 정보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지,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최장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한국거래소에 지수를 위탁 개발하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민간사업자가 등장하면 기간이 더욱 짧아질 것"이라며 "다양한 파생지수가 나오면 이를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의의 경쟁으로 거래소도 자극을 받아서 재밌는 지수들을 만들어낸다면 파생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대어급’ 줄줄이 등판 대기 IPO 시장 활기 되찾을까

롯데리츠, 다음달 상장 예정

한화시스템, 예비심사 신청

SK바이오팜, 상장 준비 박차

지누스, 14년 만에 복귀 추진

하반기 IPO 시장에 '대어'들이 입을 성을 준비하고 있다. 대내외 악재로 공모 철회가 잇따르는 등 썰렁해진 공모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시스템, 롯데리츠, SK바이오팜, 지누스 등이 연내 코스피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들 모두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추정되는 대형 기업이다.

롯데리츠는 10월 내 상장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요 예측을 받고 같은 달 8일부터 11일까지 일반 청약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총 자산 규모 1조5000억원 수준으로, 공모금액만 최대 4300억원대에 육박한다.

매트리스 전문기업 지누스도 상장 폐지 14년 만에 코스피 시장 복귀를 노린다. 지누스는 코스피 상장사였지만 경영환경 악화로 2005년 상장 폐지됐고, 2014년부터는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만 6월 5일 상장 예심을 청구한 이후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원칙적인 심사 기간은 45영업일이지만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심사 기간을 연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코스피 상장 예정기업

	진행 상황
롯데리츠	10월 말 상장 예정
지누스	예심 청구
한화시스템	예심 청구
SK바이오팜	예심 청구 시기 조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26일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고, 예상 기업 가치가 5조 원에 달해 새로운 '바이오대장주' 후보로 거론되는 SK바이오팜도 상장 예비심사 신청 시기를 조만간 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어'들의 등장이 IPO 투자심리를 녹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어급 공모주들이 성공적으로 상장 절차를 마친다면 IPO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IPO 종목에 투자된 자금 규모가 줄어들어 유동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10월 대규모 공모청약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고, 공모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투자심리도 일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최종경 BNK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지누스 등 중대형급 기업의 상장이 이어지면 전년 최저치를 기록했던 공모금액에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KB증권, 업계 첫 폴더블폰 전용 MTS 출시

'폴더블폰(접히는 스마트폰)'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증권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5일 KB증권은 국내 폴더블 폰 출시 일정에 맞춰 MTS 'M-able(마블)' 폴더블(Foldable) 버전을 업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MTS는 모바일 화면의 특성상 다양한 매체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용자 경험과 고객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해 '폴더블 버전' 화면 구성을 기획했다.

'폴더블 버전'은 한 화면에 내게 필요한 정보를 내 마음대로 배치해 한눈에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큰 화면을 확대 및 축소 보기를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심종목 화면을 필두로 매매에 필요한 화면(호가, 차트, 주문, 추이, 자산평가, 지수 등)을 삼분할 배치해 한눈에 볼 수 있



다. 또 종목 연동 기능을 통해 같은 종목은 물론 서로 다른 종목에 대한 정보도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선영 기자 moon@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테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MT
1547.1135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매년 수십억대 일감 몰아주기 ‘유피시스템’ 내부거래율 95%

〈정지완 회장 3형제 지분 99.7% 보유〉

증권그룹 일감돌보기

솔브레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재료 제조사 솔브레인이 정지완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매년 수십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솔브레인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다.

정 회장 자녀들의 개인회사는 매년 내부거래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정 회장과 형제들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95%대의 높은 내부거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 회장의 자녀인 정석호 이사와 정문주 씨가 각각 59.39%, 40.6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머티리얼즈파크는 지난해 전체 매출 234억 원 중 133억 원을 솔브레인, 웨트, 유피시스템 등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내부거래 비율은 △2016년 28.88% △2017년 43.36% △2018년 56.84%를 기록,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너 2세들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주고 재원을 확보한 뒤 이를 그룹 지배력 확보에 활용하는 행태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오너일가 개인회사인 유피시스

솔브레인 내부거래 머티리얼즈파크 (단위: 억 원, 별도기준)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	187	226	234
내부거래	54	98	133
영업이익	29	66	71
비율(%)	28.88	43.36	56.84

유피시스템 (단위: 억 원, 별도기준)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	21	20	21
내부거래	21	19	20
영업이익	7	7	7
비율(%)	100	95	95.24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정 회장 자녀 지분 100% 보유 ‘머티리얼즈파크’ 내부거래율 56.8%… 매년 늘어나는 추세

템은 정 회장(지분율 39.7%)을 비롯해 정지연 전 웨트 대표(34.7%), 정지흥 유피시스템 대표(25.3%) 등 삼형제가 지분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내부거래가 더 심각하다. 지난해 매출 21억 원 중 20억 원가량을 솔브레인과 웨트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내부거래 비율은 △2016년 100% △2017년 95% △2018년 95.24%로 매우 높은 편이다.

솔브레인은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연 매출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시총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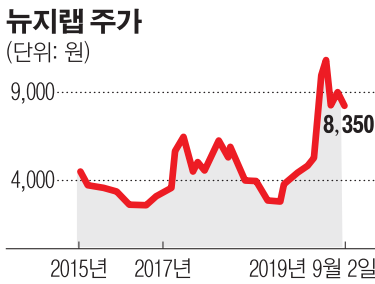
2000억 원이 넘는다. 이 회사는 오너 2세인 정석호 이사가 2017년 등기이사로 선임될 당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의식해 정 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비즈네트웍스 지분 70%를 매입하고, 비즈네트웍스와의 거래도 중단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거래와 관련해 “사업 보고서에 나온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4세대 대사항암제 내년 임상1상”

기업 주식담당자 주담과 Q&A



뉴지랩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 신규 사업인 5G 모바일 디바이스 유통사업의 매출 증대가 주요 요인이다. 하반기는 삼성 폴더블폰 등 고가의 스마트폰 출시로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4세대 대사항암제 임상 1상을 진행하는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행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을 통한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5G 모바일 디바이스 유통사업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3년여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이다. 상반기 회사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0% 급증한 513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하반기는 실적 개선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하반기는 삼성 폴더블폰 등 고가의 디바이스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크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약 개발 관련 향후 임상과 상장 계획은?

“4세대 대사항암제 ‘뉴지랩파마’는 최근 CRO(임상시험수탁기관) 및 CMO(생산대행기업)를 선정했으며 조만간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기영 기자 pgy@

‘부채 상환’ 총력전 나선 나인컴플렉스

256억 규모 주주배정 유증 대구·구미 공장 매각 추진

최근 사명을 바꾼 나인컴플렉스가 공장 매각과 주주배정 유증증자 등을 통해 빚 상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나인컴플렉스는 최근 256억 원 규모의 주주 우선 공모 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신주의 예정 발행가는 2045원으로, 10월 18일 확정된다. 구주주에게는 1주당 1.2922주의 신주가 배정되고 총 125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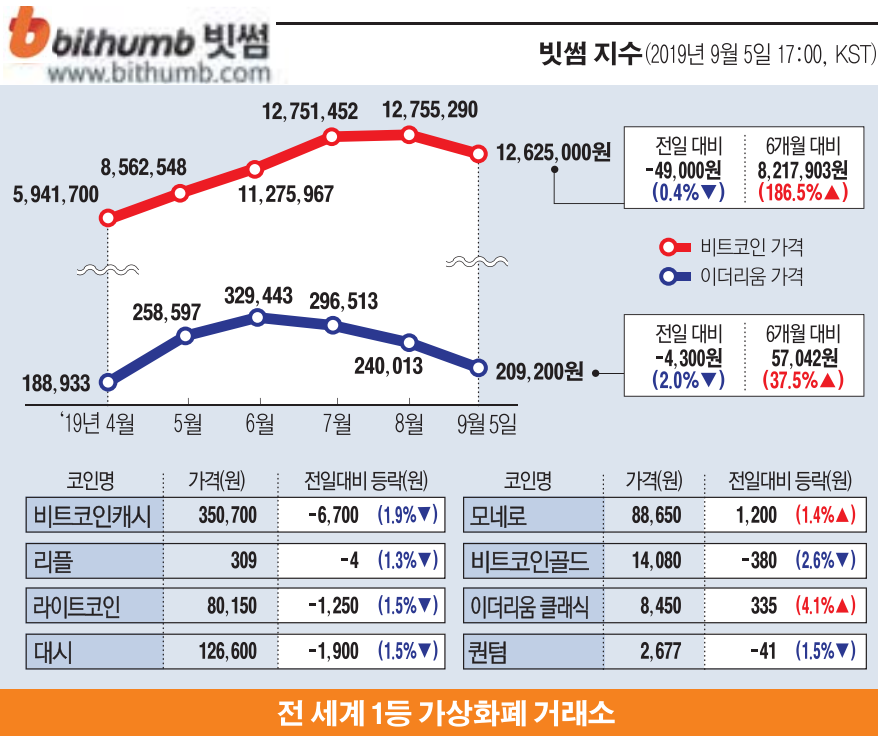
나인컴플렉스는 이번 유증으로 조달된 자금 대부분을 부채 상환에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 사용 목적을 보면 1순위는 장단기

은행차입금 상환이다. 여기에 쓰는 자금만 128억 원이다. 또 유동성 회사채 일부 상환에 20억 원, 10·14회 차 전환사채(CB) 일부 상환에 50억 원을 쓸 계획이다. 조달 예정인 256억여 원 중 77.7%가 빚을 갚는데 쓰이는 셈이다. 나머지 자금 57억 원은 신규 화장품 사업 등 운영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증자를 통한 차입 상환 계획 외에 은행 차입에 담보로 잡힌 대구공장과 구미공장 등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구미공장 토지와 건물을 40억 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4억 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잔액은 30일 받을 예정이다. 회사는 매각 대금으로 담보대출 7억 원과 산업은행 담보대출 31억 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은용결제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수수수료는 0.066%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증권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예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9-62호(2019.02.28)

“새 옷 입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잡아라”

대형건설사 브랜드 리뉴얼 ‘열풍’

건설업계에 아파트 브랜드 리뉴얼 바람이 거세다.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권 건설사 중 절반가량이 최근 아파트 브랜드를 바꾸거나 새 브랜드를 론칭했다.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새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재도약도 도모하겠다는 건설사도 적지 않다.

GS건설 자회사인 자이S&D는 5일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자이르네(Xi rene)’를 론칭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7월 한화건설도 2001년부터 사용해 오던 ‘꿈에그린’ 브랜드를 버리고 새 주거 브랜드 ‘포레나(FORENA)’를 선보였다. 포레나는 아파트·주상복합단지·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통합 브랜드로, 기존 꿈에그린과 오벨리스크 브랜드를 대체하게 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브랜드가 흩어져 있어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서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 포레나를 론칭했다”면서 “기존 꿈에그린은 영문 표기도 힘들었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컨셉트를 담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만형 격인 현대건설은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용하는 ‘힐스테이트’ 명칭 표기 시 영문을 없애고 한글로 단일화하고 국내 최고 건설사라는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BI(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자사 로고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앞서 2015년에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수주를 위해 고급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를 선보였다.

대우건설도 3월 자사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를 16년 만에 리뉴얼했고,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아파트 브랜드를 도입한 롯데건설도 1월 아파트 브랜드 ‘롯데캐슬’의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롯데캐슬 3.0’을 공개했다. 롯데건설은 조만간 재건축 시장 공략을 위한 하이엔드 브랜드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호반건설은 주



GS건설 자회사 자이S&D

새 브랜드 ‘자이르네’ 론칭

현대·한화 등도 앞다퉈 바뀌

정비사업 수주 선점 노려

상복합단지에서 적용한 ‘호반 씨밋플레이스’를 ‘호반 씨밋’으로 리뉴얼하는 한편 아파트 브랜드 ‘베르디움’의 BI 디자인을 변경했다.

‘고급 건축물의 명가’ 쌍용건설도 지난해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브랜드를 ‘더 플래티넘’으로 통합하고 올해 분양하는 모든 주거 단지에 통합 브랜드를 적용하고 있다. ‘데시앙’ 브랜드로 알려진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도 BI 디자인을 새롭게 바꿨고, 신세계건설은 ‘빌리브’, 대보건설은 오피스텔 브랜드 ‘하우스디 어반’을 새로 내놨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대거 브랜드 리뉴얼과 론칭을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 수주를 위해서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최근 택지 공

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주요 수주처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일감(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브랜드 파워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인기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때문에 3~4년 전에는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론칭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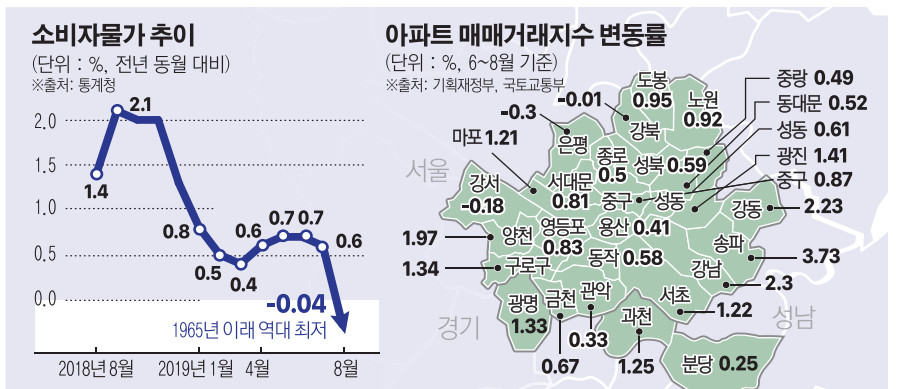
아파트 브랜드 도입 초창기에 브랜드를 선보인 건설사들의 경우 세월이 20년 가까이 흐른 만큼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도 최근의 브랜드 리뉴얼 열풍 이유로 꼽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팀에서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브랜드 파워가 떨어져 수주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했다”면서 “다른 건설사들도 경쟁에서 뒤질 수 없는 만큼 브랜드 리뉴얼이나 론칭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업계의 브랜드 시대는 1999년 롯데건설이 처음으로 아파트에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0년 삼성물산(래미안), 대림건설(e편한세상), SK건설(SK뷰)이 새 브랜드를 들고 합류했다.

2001년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과 한화건설(꿈에그린), 2002년에는 현대건설(힐스테이트), 포스코건설(더샵), 대우건설(푸르지오), GS건설(자이) 등이 잇달아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바야흐로 아파트 브랜드 전성시대를 열었다. 건설사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당시 배웅준과 손예진 등 특급 배우들을 모델로 잇따라 기용하며 화제를 낳았다. 당시 광고시장에서 건설사들은 큰손으로 불리기도 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마이너스 물가 때문에...

서울 3곳 빼고 다 ‘상한제’ 사정권

〈강서·은평·강북구〉

집값 상승률, 물가 2배 초과시 적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를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삼는 ‘분양가 상한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규정에서 물가 상승률 부분을 완화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 내려 0%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이는 1965년 통계 집계 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는 1월 0.8%를 기록한 이후 계속 1%를 밑돌다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에만 적용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최근 3개월(6~8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은 0%다. 같은 기간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한 서울 전체 집값은 0.96% 올랐다.

이 때문에 지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로만 보면 서울시 전체 25구 중 3곳(강서·은평·강북구)을 제외한 모든 구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권에선 투기과열지구인 광명(1.33%)·과천시(1.25%)와 성남시 분당구(0.25%) 등도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울 아파트값 0.03% 올라... 10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상승했다.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주춤했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단지들의 값매우기 현상에 상승폭이 유지됐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랐다.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이다. 이번 주 서울 아

파트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재건축 단지 매매가격이 제자리를 보이거나 하락했다. 하지만 그동안 인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를 중심으로 ‘값매우기’ 현상이 생기면서 상승폭을 줄이지는 않았다. 이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은 10주 연속 올랐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츠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물론 관심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편안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뉴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뉴얼 말고 실전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전 대뉴얼이자, 후속한 성장설계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재산과 구성원들의 명과 명절, 제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적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997년 지음 / 2019년 / 국민은행 / 214,0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가치를 얻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물론, 같이 읽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발견한다.

이정호 지음 / 2019년 / 국민은행 / 214,000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합헌’

헌재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위해 입법 적합성 인정”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해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예식장업을 해온 A 법인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억3000여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6억 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처벌 근거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세법 제117조의 2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옛 조세범 처벌법 제15조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은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돼 과태료가 아닌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 현금 거래가 많아 소득 탈루의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점, 자진 납부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

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 착오나 누락에 의한 경우 과태료 감경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

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과태료 조항은 부과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 자체의 위법성 정도에 차이가 없는 만큼 평등 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집중호우, 범람한 탄천

서울과 경기도(안산시·포천시·양주시·수원시·성남시·화성시)에 내려졌던 호우 주의보를 호우 경보로 격상한 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탄천이 범람하여 둔치까지 넘치고 있다.

뉴시스

흑석·공평 ‘창조적 도시 경관’ 창출

서울시, ‘성남갑 건물’ 탈피 건축 혁신 기본구상 확정

주변 풍경과 조화·공공성 확보

서울시가 ‘아파트 공화국’에서 탈피하고 창조적 도시 경관을 창출하는 ‘도시·건축혁신’ 1호 사업자에 대한 기본 구상을 확정했다. ‘흑석11구역(재정비촉진사업)’과 ‘공평15·16지구(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두 곳이 대상지다.

서울시는 5일 ‘도시·건축 혁신방안’ 4개 시범사업 대상지 중 2곳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연내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상계주공5단지(재건축사업)와 금호동3가 1(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나머지 2곳도 연내 사전 공공기획 원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상안에 따르면 ‘흑석11구역’은 인접한 현충원과 배후의 서달산, 한강변의 정온한 도시 풍경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비개마을 특유의 경관 가치 보존 △삶을 담는 마을 △서울 시민의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주



공평15·16지구 시범사업 공공대안.

택 단지 등 4가지 원칙을 담았다.

특히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현충원에서 대상지가 보이지 않도록 높이를 관리하고 배후의 서달산으로 열린 조망이 확보되도록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고층부에는 계단식 테라스형 옥상 정원을 조성했다.

‘공평15·16지구’는 종로, 피맛길, 인사동이 교차하는 대표적인 역사특성 지역이라는 중요성을 살리기 위해 정비와 존치가 공존하는 ‘혼합형’ 정비 기법을 도입, 역사성과 공공성을 확보했다. 존치되는 건물과 정비되는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안을 도입, 저층부와 옥상 정원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용산 원효 산호아파트 35층 규모 재건축

임대 73가구 포함 672가구로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서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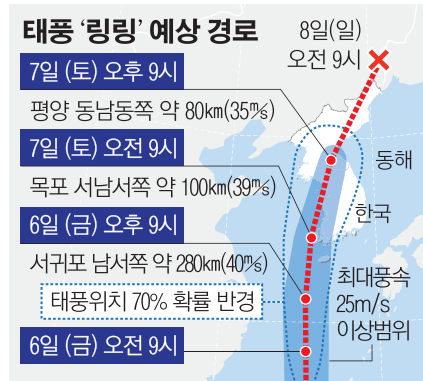
서울 용산구 원효 산호아파트가 35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원효아파트지구 내 산호아파트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건축 단지는 기존 7개동

555가구를 임대주택 73가구를 포함한 총 672가구로 용적률 281.22%, 최고 35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수정 가결 사항으로는 대상지가 한강 연접 및 배후 남산 조망 등 입지상 중요한 지역임을 고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태풍 '링링' 오늘부터 영향권

정부는 현재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이 6~7일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일 대책회의를 열고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각 부처 담당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강풍에 대비해 농작물·항만 시설·타워크레인·수산 양식시설 등의 피해 예방조치와 긴급복구·지원체계를 점검했다.

또 하천 범람이나 저수지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 계획을 살피고 현장 예찰 활동 강화와 태풍 대비 행동 요령 홍보 등도 지시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BRAVO *My Life*

Fatigue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①



②



③



④



⑤



⑥

올 댓 트립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놀자

명절 '고생길'의 반전 매력

귀성·귀경길에서 가장 익숙한 장소는 '휴게소'다. 휴게소는 이동 중 단순히 식사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깐 들리는 곳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 테마파크도 하고 수상 스키나 낚시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놀이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국내 활성화를 위한 가을 여행주간(9월 12~29일)이 곧 시작된다. 명절을 보내러 가는 사람, 그냥 심심한 사람,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휴게소로 모여들고 있다.

◇휴게소? 테마파크! 이천 덕평자연휴게소 = 세상에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을까? 벤치와 쓰레기통까지 작품이 되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산책하고, 아이들과 우주타워에서 환상적인 야경을, 반려견은 전용 풀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곳. 이천 남동구와 강원도 강릉시를 잇는 영동고속도로에 자리 잡은 덕평자연휴게소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줄 서서 먹는 유명 음식점 수준의 푸드 코트와 전문 식당가, 다양한 브랜드가 모인 쇼핑몰은 기본으로 갖췄다. 전국 휴게소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 표지판을 보고 우연히 들렀다면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널찍한 푸드 코트를 중심으로 디저트 카페와 편의점, 쇼핑몰 등이 골목골목 거미줄처럼 얹혀 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덕평소고기국밥은 2016년 한 해 동안 60만 그릇 가까이 팔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최근 리뉴얼한 메뉴인 덕평왕돈가스는 바삭한 튀김속 닭살코기가 촉촉하다.

맛있고 든든한 식사를 마쳤으면 주차장 반대편으로 나가보자. 널찍한 공간에 아가자기하게 꾸며진 중앙정원은 이름처럼 덕평자연휴게소 강릉 방향과 인천 방향 가운데 자리 잡았다. 전국에 전망 좋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여럿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홍익대학교와 협업해서 만든 아트 쓰레기통도 눈길을 끈다. '지구를 위한 주사기', '숲속의 부엉이', '환경의 자명종 시계' 같은 이름을 단 쓰레기통이 조각 작품 같다. 예쁜 연못 주위에는 수변 데크까지 갖춰 걷는 재미를 더했다.

반려동물과 함께라면 중앙정원 옆의 '달려라 코코(KoKo)'를 놓칠 수 없다. 널찍한 애견 놀이터, 애견 카페(코코카페), 애견 위생실, 애견 호텔(코코하우스) 등을 갖췄다.

연인끼리 혹은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해 질 무렵 덕평자연휴게소에 들르는 것이 좋다. 해가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면 중앙정원과 인접한 '별빛정원 우주'에 각양각색 조명이 별처럼 빛나기 시작한다. 발길 닿는 곳마다 별빛이 반짝이는 우주놀이터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 터널갤럭시101은 국내에서 가장 긴 101m 빛의 터널로, 은하수 속을 걷는 듯 환상적이다.

별빛정원 우주 뒤쪽 야트막한 언덕에는 예쁜 초승달과 소원을 들어주는 달토끼가 있다. 작은 조명이 길을 안내하는 달빛산책로도 운치 있다. 별빛정원 우주의 전망을 제대로 즐기려면 우주타워에 오르자. 자이로드롭을 타는 의자는 지상 35m 높이까지 올라가면 하늘 카페로 변신한다.

◇도리뱅뱅이도 먹고 수상 레저도 즐기고, 옥천 금강휴게소 = 충북 옥천에 자리한 금강휴게소 뒤쪽으로 유유히 흐르는 금강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 마시자 보면, 이곳이 여행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빼어난 자연경관이다. 휴게소 건물을 설계할 당시부터 산과 강이 맞닿은 주변 경치를 십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차장을 등지고 강을 바라보도록 건물을 배치하는가 하면, 통유리를 설치해 휴게소 안에서도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여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은 대부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식당과 스낵 코너, 편의점 등으로 가지만, 금강휴게소를 찾은 이들은 먼저 휴게소 뒤쪽 테라스로 달려간다.

금강휴게소는 애초부터 금강 변에 자리한 유원지로 시작됐다. 휴게소에서 금강 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차를 이용해 외부 도로를 따라 금강 변으로 내려가 낚시와 수상스키를 즐길 수도 있다. 강변에는 금강의 별미인 도리뱅뱅이를 파는 간이음식점이 늘었고, 독을 따라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이 눈에 띈다.

금강휴게소의 별미는 도리뱅뱅이다. 작은 민물고기를 기름에 튀긴 뒤 고추장 양념으로 조리는데, 금산과 옥천, 영동, 무주 등 금강 유역의 마을에서 잡히기 쉬운 음식이다. 방송인 이영자가 소개한 뒤 찾은 이들이 부쩍 늘었다. 새빨간 양념 옷을 입은 도리뱅뱅이는 보기도 군침이 흐른다. 비린내 없이 고소하고, 바삭바삭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담백한 피라미를 기름에 튀기면 멸치처럼 고소한 맛이 더한다. 피라미는 민물고기지만 완전히 익혔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시간이 나면 휴게소에서 굴다리로 연결된 조령리 마을에 가보자. 금강휴게소에서 굴다리를 지나면 닿는 마을로, 도리뱅뱅이와 생선국수가 유명하다.

이 밖에도 금강휴게소에는 자잘한 즐길 거리가 많다. 금강 쪽 테라스에 있는 '사랑의그네'는 드라이브해서 이곳에 놀러 온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다. 난간 쪽 철조망에 이들이 사랑을 염원하며 다다다닥 매단 자물쇠가 보인다.

◇드라마 촬영장이야, 휴게소야? 삼국유사군위휴게소와군위영천휴게소 =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만나는삼국유사군위휴게소와 군위영천휴게소는 각각 '복고'와 '공장'을 테마로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삼국유사군위휴게소가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 못지않은 이색 공간으로 인기몰이 중이라면, 군위영천휴게소는 최근 유행하는 업사이클링 공간을 재현한 독특함으로 승부한다.

삼국유사군위휴게소는 외관이 평범하지만, 반전이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는 1960~1970년대 분위기가 인테리에 여러동절하다가, 이내 환한 웃음을 보이며 즐거워한다는 얘기. 커피 매장 앞에는 인조가죽을 씌운 두툼한 소파가 놓였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쓴 '장미다방'이라는 글씨가 또렷하다.

주변이나 당번이 차던 완장, 가로등 켜진 나무 전봇대 아래 쇠사슬로 묶어놓은 자전거, 전선에 나란히 앉은 참새들, 음수대 위에 '물 마시는 곳'이라는 글씨와 함께 매단 구식 펌프는 보는 것만으로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다. 검정 교복을 맞춰 입은 매장 직원도 훌륭한 주연들이다. 이런 곳이다 보니 '대신상회'라고 부르는 편의점에서 쏘드기, 라면탕, 강냉이 같은 그 시절 먹거리를 파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

복고를 테마로 꾸민 휴게소답게 이곳의 대표 먹거리는 '추억의 도시락과 라면'이다. 보글보글 끓인 라면에 김치 볶음, 멸치무침, 구운 소시지, 김, 화룡점정 달걀프라이까지 담아낸 도시락을 보면 시골벽적하던 학창 시절 점심시간이 떠오른다.

영천 방면 군위영천휴게소는 '공장'을 테마로 내부를 꾸몄다. 버려진 공장을 카페나 식당으로 꾸민 업사이클링 공간의 휴게소 버전이라고 할까. 실제 폐공장을 휴게소로 재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벽면 콘크리트를 들어내고 벽돌을 쌓아 음수대를 만드는 등 새로 지은 건물을 낚아 보이게 했다. 직원 유니폼은 안전제일 마크가 선명한 작업복이다.

김소희 기자 ksh@

①금강휴게소의 별미인 도리뱅뱅이. ②금강유원지에서는 수상스키도 탈 수 있다. ③금강휴게소 야외테라스 모습. ④덕평자연휴게소의 소원을 들어주는 달토끼. ⑤덕평자연휴게소대표메뉴인 덕평소고기국밥. ⑥삼국유사군위휴게소에 '대신상회'란 간판을 단 편의점.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일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지… 이제 쉬면서 봉사도 다녀요”

58년 연기 인생, 정혜선

한복을 입고 표지 촬영을 진행하는 연기자 정혜선을 보면서 새삼 한복이 무척 어울리는 배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시청률 60%를 넘긴 전설적인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딸을 구박하는 독한 어머니 모습으로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그 이전이나 이후로나 ‘국민 어머니’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드라마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아 열연했던 그녀는 곧 팔순을 바라보는 1942년생이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기가 넘치는 자태를 보니 어찌면 긴 세월 빛어낸 어머니 상이 우리에게 영원처럼 고정된 게 아닐까 싶었다.



그녀는 30대부터 할머니 역할을 주로 맡았다. 불과 31세 때 MBC 드라마 ‘새엄마’에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했다.

정혜선은 1961년 KBS 공채 탤런트 1기로 연예계에 처음 입문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예회에서 뽀뽀하고 무용도 하고 노래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수도여고에서는 방송반 활동과 웅변을 하며 상도 꽤 받았고요. 아버지가 원고를 써주는 등 많이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탤런트가 뭔지도 모르면 때에 아버지가 지원 원서를 가져다주셨어요.”

대부분의 가정집에 TV가 없던 그 시절, ‘뭔가를 알았던’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보면 아무래도 그녀는 연기자로 살아갈 운명이었나 보다. 당시만 해도 연예인을 ‘판파라’로 부를 만큼 인식이 좋지 않았을 것인데 딸의 재능을 알아본, 열린 생각을 가진 아버지 덕분에 시작이 평탄했다.

가족의 지원으로 연기자 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1967년 KBS ‘실화극장’에서 간첩 두목 등 캐릭터가 강한 역할에 캐스팅되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그녀는 성격과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쌓기 시작했다.

“어머니 역할을 그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 시절은 배우가 별로 없었으니까. 얼굴에 주름 그려가며 어머니, 할머니 역할을 소화해 내면서 연기력을 인정받았죠.”

연기자,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주로 하게 된 것은 운명 같은 일이었을까? 그녀는 30대부터 할머니 역할을 주로 맡았다. 불과 31세 때 MBC 드라마 ‘새엄마’에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했다.

1977년에 한 설문조사에서 할머니 역할을 잘하는 연예인 2위로 뽑히더니, 1978년에는 아예 1위를 차지했다. 연기자로서의 첫 절정기는 1983년이었다. 마흔 즈음에는 MBC 드라마 ‘간난이’에서 손주들을 데리고 거친 세상을 사는 80세 척추 장애(짚추)를 가진 할머니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 각종 상을 수상했다.

그렇지만 “나도 살았는데…”

남편과의 결별은 이혼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의 빚까지 갚아나가야 했다. 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기대어 신세를 질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도 채권자 분들이 순순히 기다리기로 해서 제 출연료를 3분의 2씩 가져갔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고맙죠.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지만.”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단돈 100원도 안 준다’는 게 그녀의 지론이다. 그래서 그녀는 요즘 급격히 높아진 자살률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나 같은 사람도 죽지 않고 잘 사는데 왜 자살을 하지… 나는 자살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안 죽었어요.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죽음은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죽는 방법도 있었네.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웃음)”

허공 속으로 흩어지는 그녀의 퍽퍽한 웃음소리에 좀 아팠다.

나누고 베풀며 겸손하게

개인으로서, 여자로서 정혜선은 불행했는지 모르지만, 모두의 배우로서는 불행하지 않았다. 그녀의 방송 활동에는 슬럼프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 연기하며 힘들었던 순간이 없다 할 정도로 매일 최선을 다했으므로 기억이 안 난다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음 프로그램이 예약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방송국에서 시청률이 높으면 보내주는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갔죠. 늘 바빠서 쉴 틈이 없었어요. 내 인생은 완전히 일의 연속이었어요. 물론 내가

딸의 재능 알아본 아버지가 KBS 공채 원서 가져다줘
그땐 연기자 많지 않아 30대부터 할머니 역 맡아
MBC 드라마 ‘간난이’로 각종 상 휩쓸 때 앨범도 내놔서
서른두 살 다시 싱글로 돌아와 지금껏 혼자
일하느라 바빠 유럽 여행 한번 못 가본 건 좀 억울해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의 연기자

그녀는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보다는 ‘썸’ 역할을 주로 맡았다.

그런데 인기가 많아지자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한때 가수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간난이’에서 80세 할머니로 출연해서 불쌍한 손주들을 지극히 보살피는 역할로 각종 연기대상을 휩쓸었던 그해 1983년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이라고 해서 롯데호텔에서 디너쇼를 열어줬어요. 그때는 철딱서니가 없었죠. 그 재주로 디너쇼를 했더니.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별거 다 했어요.”

같은 해에 매니저의 제안으로 앨범도 하나 녹음했다. 잠깐 가수활동을 하며 남긴 유일한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망각’. 발라드풍의 처연한 노래인데, 직접 가사도 썼다. ‘잊어야만 했기에 잊었노라고/ 지워야만 했기에 지웠노라고/ 너와 나의 아름다운 그 옛날 추억이 못 잊어 생각나면/ 아 강물 위에 내 마음 띄워보리’

여자로서의 삶은 불행했다

노래 가사에 배인 슬픔과 애잔함을 증폭시키는 애절한 창법을 들으니 자연스레 그녀가 겪은 고통이 떠올랐다.

“서른두 살에 다시 싱글이 됐죠. 여자로서 정혜선은 불행했지. 그 부분에서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해요. 여자로서 태어나 남편 잘 만나 아이 행복하게 키우면서 가정 잘 이끌어가고 그랬어야 했는데… 짚신도 짚이 있는데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는 건 비극이에요. 물론 그동안 날 좋아하는 이도 있었고 중매도 들어오곤 했지만, 지금은 혼자야.”

TV에서 보는 정혜선은 거칠고 과격한, 세월의 풍파에 시달려 독해진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러나 실제의 정혜선은 조용하고 나긋나긋하며 차분한 목소리를 지닌 천생 여자의 모습이다. 담담하게 자신을 패배자라고 말하는 그녀에게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이가 있을까. 그 모습에서 자기 삶을 희생하며 사는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워커홀릭 성향도 있지만, 연출자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더 불려줬던 것 같아요.”

그녀는 문득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탈리아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잠시 억울해했다. 요즘은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는 유럽 여행 아닌가. 수십 년을 대한민국 국민의 어머니로 살았던 사람이 일하느라 이탈리아도 못 가봤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어머니답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일만 하는 정혜선이었죠. 일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으니까. (웃음) 그런데 요즘 쉬면서 생각해보니 일이 다가 아니구나 싶어요. 너무 늦게 알았지. 지금은 쉬면서 봉사도 하러 다녀요. 내가 나서기만 해도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서 시간이 나면 자주 가고 있어요. 무엇이든 내가 쓰임이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한다

겸손하고 배려심 많은 성품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온 그녀는 진정성 있는 삶으로 탄탄한 신뢰를 쌓아왔다. 초심을 지키며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우직함이 그녀의 힘이다. 그녀는 이번 추석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빠 예정이라한다.

“지인과의 인연으로 NBS한국농업방송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맡았어요. ‘그땐 그랬었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내레이터를 하기로 했어요.”

작든 크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충전하는 좋은 시간으로 즐긴다. 그저 평범하면서도 평탄하게 살기를 바라는 이처럼.

“나는 애써 관리해온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살았던 것뿐”이라는 그녀의 말에는 연륜과 관록이 묻어 있다. 그녀 삶의 원동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설명이기도 했다. 어찌면 그녀의 삶에서 우리가 보았던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마치 고향처럼,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 같은, 아련하면서도 올곧고 강인한 모습으로서.

연연하지 않는 삶, 이렇게 살아서 또 한 번의 아침을 맞듯 그녀에게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

글 / 김영순 기자 kys0701@

사진/홍상돈 프리랜서 photohong1@hanmail.net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혁신금융을 어시스트하다

꿈을 가진 벤처 창업가들이
혁신을 드리블하고 한계를 넘어서
성공이라는 골을 넣길 바라며

하나금융그룹은 혁신금융지원 사업으로
함께 꿈을 키우겠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혁신금융협의회

창업, 벤처기업의 혁신금융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출범

혁신금융 20조원 지원

2021년까지 기술금융 등 혁신금융 대상 20조 지원 예정

하나벤처스 설립

국내 최초 신기술 금융사 설립 및 1천억 펀드 조성 예정

“바닥 친 자신감 회복…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죠”

롯데홈쇼핑 경단녀 프로그램 통해 취업 성공한 안희운 씨

출산 후 4년간 일 쉬다 아이 어린이집 들어간 후 구직 나서
교육비·협력사 면접 기회 제공…원하던 일 찾는 데 큰 도움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은 식품, 패션, 뷰티 영역별로 나눠서 시장 조사를 한 후 트렌드를 발표하면 MD들이 피드백을 해 주는 수업이었는데 아이 낳고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일 없이 살아오다 잘했다고 해주니 자신감이 생겼다. 그땐 뭐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단절된 경력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거듭 실패한 그에게 롯데홈쇼핑의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 10월 구세군 입사를 앞둔 안희운(31) 씨 이야기다.

롯데홈쇼핑은 6월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손잡고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2회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롯데홈쇼핑이 교육생을 선발해 1인당 100만

원가량의 교육 수당, 홈쇼핑 직무교육, 유통 현장학습, 해외 유통기업 연수 등 8주간의 프로그램을 지원한 뒤 롯데홈쇼핑 협력업체에 면접 불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롯데홈쇼핑은 채용에 나서는 협력업체에 3개월간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대졸 신입 공채 기준)의 80% 이상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찾은 수료생은 85%에 달한다.

스무살 때부터 리포터 활동, 행사 진행으로 바쁘게 살아온 안 씨는 결혼과 출산 이후 일이 뚝 끊겼다. 처음엔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일 욕심이 없었다. 2016년 아이를 낳은 후 4년 동안 경력 단절 기간을 보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간 후부터 다시 ‘직업’을 찾고 싶은 마음에 불안해졌다. 지난해부터 뒤늦게 구직활동에 뛰어들었지만 소득은 없었고 자신감만 잃었다.



롯데홈쇼핑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구세군 입사에 성공한 안희운(31) 씨.

그는 “연극영화과 출신이고, 리포터 활동, 행사 진행 등의 일을 해봤지만 출산 후에는 외모를 앞세우는 일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일을 찾고 싶었는데 아이가 있는 기혼녀, 공백기 등 여러 조건과 능력

이 부족했다”며 “운 좋게 면접에 올라가도 아이가 어려 업체 측이 꺼리는 게 느껴졌다.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 방학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 뭘 잘할 수 있을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작아지는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이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안 씨는 맘 카페에 올란 글을 보고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그는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소통 능력, 기술, 조별 활동을 통한 성향 파악으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안 씨는 행사 진행 경력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결과 두 번의 면접을 거쳐 다음 달부터 구세군에서 봉사활동 관리직으로 일한다. 그는 “취업이 너무나 간절했는데 원하는 곳에 입사해 행복하다. 남편은 물론 가족들도 많이 축하해줬다. 평생직장을 찾은 만큼 오래 다닐 계획”이라며 “주변에 ‘경단녀’가 있다면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에
문재도 前 산업통상부 차관



문재도(앞줄 가운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초대 회장이 5일 취임식에서 추진단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추진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초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 달성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확산 및 수소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들이 모여 설립한 민관협의체다. 문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년 단위 연임도 가능하다.

문 회장은 “수소경제사회 진입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장에 선임된 것에 대해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향후 수소경제 이행을 조기에 실현하고,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석사과정도 수료했다. 1981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장, 자원정책과장, 통상지원심의관, 산업자원협력실장 등을 거쳐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맡았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받은 도움 다시 나누는 ‘맛있는 밥상’

호텔신라 지원 식당 주인들, 5년째 어르신 봉사

호텔신라의 ‘맛있는 제주만들기’ 지원 식당 주인들이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맛있는 밥상’ 봉사모임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호텔신라는 제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 주인들이 서귀포시에 있는 하모2리 노인회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과 독거노인 100여 명에게 홍삼갈비탕, 즉석 비비규 등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맛있는 밥상’ 봉사활동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주들과 오상문 제주신라호텔 총지

배인을 비롯 호텔신라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배식과 주변 환경 정화, 레크리에이션, 생필품 전달 등의 활동을 펼쳤다.

‘맛있는 밥상’ 봉사활동은 2015년 10월 제주도 연동 경로회관을 방문해 어르신 120여 명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에는 태풍 ‘차바’의 피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였던 서귀포시 ‘신례2리 노인회관’을, 2017년에는 제주도 동제주사회복지관, 지난해에는 서귀포시에 있는 대포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께 맛있는 한 끼를 대접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 주인들과 호텔신라 임직원들이 5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2리 노인회를 방문해 ‘맛있는 밥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호텔신라

“아이들에게 맑은 공기 선물해요”

현대오일뱅크, 보육원에 수직정원



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서울 용산구 영락보린원 건물 내 벽면에 수직 정원을 만들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이 5일 아동복지시설 실내 벽면에 수직 정원을 조성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서울 용산구 영락보린원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현대오일뱅크 신입사원을 비롯해 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수직 정원 모양을 스케치하고 선정된 도안에 따라 직접 식물을 심었다. 식재하는 식물은 스킨답서스, 스파트필름, 테이블야자 등 공기 정화 효과가 탁월한 식물 위주로 선별했다.

이번 행사는 벽면 녹화 기업인 ‘브라더스키퍼’와 협업했다. 브라더스키퍼는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 종결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은 정원 조성뿐만 아니라 유지 및 관리 비용까지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정상영 KCC 명예회장 기부한 울산대 기숙사 완공

KCC와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170억 원을 기부해 건립한 울산대학교 신축 기숙사가 완공됐다.

5일 KCC에 따르면 4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울산대학교에서 ‘울산대학교 KCC 생활관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몽진 KCC 회장을 비롯해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정정길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몽진 회장은 축사에서 “보다 많은 학

생이 캠퍼스 내에서 면학에 열중할 수 있도록 건립된 KCC 생활관은 단순한 기숙사를 넘어 교육, 문화의 공간으로서 젊은 인재들이 미래를 꿈꾸는 요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CC 생활관은 연면적 1만2615㎡의 5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상 1층과 2층에는 식당·카페 등의 복지시설이, 3층부터 14층까지는 254개의 사생실과 휴게실·세탁실 등이 들어섰다.

변효선 기자 hsbyun@



4일 울산대 기숙사 ‘KCC 생활관’ 준공식에서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정정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정몽진 KCC 회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울산대

인사

◆소방청 ◇전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갑 신원우

◆하이투자증권 ◇센터장 신규 보임 △울산전하WM센터장 권태은 ◇부서장 신규 보임 △연금사업팀장 강태욱 ◇지점장 이동 △강남WM지점장 박미숙 △울산전하WM지점장 김찬곤

◆스포츠서울 △경영관리본부장 장호영 상무 △경영지원본부장 김형민 △마케팅본부장 위원석 △편집국장 고진현 △사업국장 김성배 △광고국장 염진근 △편집국 체육1부장 김현기 △“체육2부장 이용희 △“연예2부장 박효실 △“문화레저부장 박현진 ◆한류타임즈 △금융증권부장(부국장급) 이승제 △IT·중기부장 김진욱

부음

▲한인영 씨 별세, 한찬섭(현대오일뱅크 구로셀프주유소 대표)·은경·용섭(OSEN 스포츠1국 부장) 씨 부친상·신현국(아이셋데이이 SI사업부 부장) 씨 장인상, 김민숙·이지숙(이노션 홍보팀장) 씨 시부상 = 5일, 경남 사천시 농협장례식장 301호, 발인 7일 오전 7시, 055-852-0004

▲심재덕 씨 별세, 안태자 씨 남편상, 심영(셀유포트 대표)·현·명화·민정 씨 부친상, 전승훈·서병주·조흥기 씨 장인상, 전윤하·전다영·조해인·조현우 씨 조부상 = 5일, 대전 대청병원 장례식장 VIP실, ▲안온신(전 풍문여고 교사) 씨 별세, 김봉래(전 경기은행 전무) 씨 부인상, 김

은상(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은서(다나아비인후과 원장)·은석(위례서울치과병원 원장)씨 모친상, 오지원(전 강원대 의대 교수)·도윤정(전 소화아동병원 임상병리과장)·박은진(이대목동병원 치과 교수) 씨 시모상 = 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6일 오전 11시부터 15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30분, 02-3410-6906(6일 오전 11시부터 02-3410-6915)

▲박만석(전 서울특별시 하수국장) 씨 별세, 이상조 씨 남편상, 박현주·현화·현진·상혁(지성행정&컨설팅 대표) 씨 부친상, 윤석호·김형일·강철기(건축사무소 새움 대표) 씨 장인상, 임희연 씨 시부상 = 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2

“美 마이너스금리 시간문제

경기침체? 증시 주목하라”

그린스펀 前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사진)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 침체와 관련해 “증시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또 전 세계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는 미국에도 시간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4일(현지시간) 그린스펀 전 의장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상하게도 침체 여부는 상당 부분 증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체로 부(富)의 효과’와 변동성이 강한 주식시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것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측정할 수 없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우리 경제가 매우 짧은 지연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당신이 차트분석가라면 증시가 어디로 향할지 약간 걱정되는 시기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뉴욕증시가 꺾이게 되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그린스펀 의장은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도 예고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미국도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장기물인 30년 만기 미 국채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현재 1.9% 선에 머물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자본시장 속으로



구 용 옥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DLS 문제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의 문제이지 관련 상품 시장 존재 여
부와 무관한 것이다. 최근 제기되는
사모펀드의 문제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문제 정도로 볼 수 있다. 오
히려 규제 완화 속도를 높여서 모험자
본시장이 더욱 성장하여 신성장산업
을 육성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공급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최근 자본시장에는 파생상품연계증권
(DLS) 관련 손실이 이슈화되고 있다. 문
제가 된 DLS는 독일 국제 10년물과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것인데 갑작스러운 기준
금리 인하로 인해 원금손실 구간에 접어들
었다. 이 상품은 만기 때까지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3~5%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면 상당
부분의 원금을 잃을 수 있다.

DLS 관련 손실 문제는 상품 자체보다
는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DLS는 일반투자자들이 투
자하기에는 위험이 높은 상품으로 분류되
어 있다.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투
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 구조와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DLS 판매 절차가 준수되었고 상품 구
매자가 DLS 관련 높은 위험성을 인지했
다면 최근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사안은
아닐 것이다. 상품 판매과정이나 상품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슈화

규제 완화를 멈출 수는 없다

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진상 파악 절차
가 진행되었지만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생
각해볼 사안이 있다.

첫째,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정확
한 공과를 따져서 사안별로 원인 규명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보상과 같은
수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금융
상품 관련 문제 발생 시 포괄적 규제안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았다. 포괄적 규제안은
사건수습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장점
은 있지만 무임 승차자가 발생할 문제도
있다.

실제 투자자가 파생상품 구매 경험이 있
는 등 위험에 대한 사전 인지가 가능했음
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규제를 받는다면 상
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원은 나중에 보상이
되므로 위험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여 높은
성과보수를 취하려 할 것이다. 상품 구매
자의 경우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여 높은
수익을 취하거나 위험 발생 시 보상을 통
해 원금을 보전받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 가능성을 낮추지
않으면 금융상품 관련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위험한 상품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높은 금
융상품 관련 문제 발생 때마다 위험이 높
은 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교
통사고가 위험하니 자동차를 없애자는 주
장과도 다르지 않다.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 다양한 위험
스펙트럼 덕분에 다양한 수익률의 상품이
존재할 수 있다.

위험한 상품을 없애기보다는 위험과 수
익 간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에 맞는 금융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투
자자나 금융소비가 공존하는 자본시장
이 있어야 다양한 기업에 자금 공급이 가
능해지는 것이다.

셋째, DLS나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본시장 규제 완화 논의를 멈출
이유는 아니다. 한국은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 구조로 경
제 구조가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
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은행 예금보
다 높은 수익률의 상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최근 한국도 자본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균형 잡힌 금융시
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일
종의 금융산업 구조 개편이라고 볼 수 있
다.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금융시장에 일
부 문제가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근
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금융시장에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본
시장의 규제 완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
다. DLS 문제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의 문제이지 관련 상품 시장 존재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 최근 제기되는 사모펀드
의 문제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문제
정도로 볼 수 있다. 오히려 규제 완화 속도
를 높여서 모험자본시장이 더욱 성장하여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김지호의
古美術을 찾아서

고미술 평론가
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는 비유가 있
다. 그렇다면 가구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을까? 이 비유가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삶과 함께하는 가구에
는 그 삶을 규정하는 자연의 질서와 인간
의 지혜가 담기기 마련이다. 그렇듯 우리
고가구에는 한반도의 풍토적 특성과 이땅
에 터전을 일구고 살았던 조상들의 심성이
배어 있고 더불어 미의식이 두껍게 침착되
어 있다.

우리 고가구에 대한 미학적 평가는 풍성
하다. 인위적인 장식이 배제되어 소박하면
서 자연스럽고 단순하면서 격이 있다. 간결
한 구성과 뛰어난 비례가 만들어내는 편안
함이 있고 거기에다 실용적 아름다움이 더
해진다. 일상의 삶을 품은 듯 여유롭고 때
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경이로움마저
감지된다. 그래서일까, 그 조형성은 평범한
듯 비범하고 단선적인 듯 중의적이다.

최근 들어 우리 고가구를 보는 세간의

우리 고가구를 보는 새로운 시선들

눈길에 변화가 느껴진다. 고가구에 구현된
아름다움의 재발견, 또는 주거공간에 대한
의식 변화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다. 이를
테면 한옥 구조에 맞게 발전한 고가구가
아파트와 같은 서양식 주거공간에 맞지 않
는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
로 그 미학을 접목하고 응용하는 데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변화에 부응이라도 하듯 반닫이나
책장 등 단순하면서도 목직한 고가구를 비
치하는 집들이 늘고 있다. 이를 두고 현대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경박한 색과 디자
인, 번잡함의 홍수를 피해 조용한 심터로
서의 의미가 강조되는 주거공간에는 단순
함과 조용함, 안정감이 요구되고 그 중심
에 우리 고가구가 자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일까?

다른 한편으로 거래가격이 여타 고미술
품에 비해 저렴하게 형성되는 최근의 시장
동향도 그러한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고가구는 집에 두고 감상하는 즐거움에
다 실제 생활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

용성을 겸비한 것이 특징인데 그런 재화적
속성도 수요층을 넓히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점도 있다. 30~
40년 전에 옛날 목재로 반듯하게 만들어진
복제품이 진품으로 유통되기도 하고, 또
수리된 것들이 수리되지 않은 물건으로 둔
갑한 채 돌아다니는 것도 많다. 가격을 올리
기 위해 손을 대거나 변형시킨 사례도 더
러 보인다.

가구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물건이다. 당
연히 쓰다 보면 부서지고 훼손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크게 나쁜 상태가 아니라면
고치거나 손봐서 쓰는 것이다. 그런 탓에
우리 고가구 가운데 원형을 온전하게 유지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드물다. 실정이 그
러한데도 거래하는 상인들은 모르는 척 넘
어가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
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수
리의 의미와 수리된 가구를 대하는 상인과
컬렉터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해결
되기 힘들 것이다.

또 하나는 사용이나 보관 관리와 관련되
는 문제이다. 전통 한옥은 통풍과 습도 조
절이 잘되는 자연친화적 재료와 구조여서
그런 공간에 비치된 가구는 자연스레 자연
과 더불어 숨을 쉬듯이 수축 이완함으로써
뒤틀리거나 갈라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
나 밀폐되고 고온 건조한 현대식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에서는 반닫이와 같이 두꺼
운 통판으로 제작된 가구는 별 문제가 없
지만, 얇은 무늬목을 붙인 장롱이나 문갑,
함처럼 섬세한 가구들은 대개 틈이 생기거
나 갈라지는 취약점 때문에 보관 관리에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수적인 문제점들은 있으나, 그래
도 우리 고가구는 잠재된 본연의 가치가
뛰어날뿐더러 실용성에 더해 감상하는 즐
거움 또한 적지 않다. 집에 두어서 편안하
고 세월의 흔적과 옛사람들의 손길을 느끼
며 교감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올라가는 것, 바로 우
리 고가구에서 찾을 수 있는 컬렉션의 매
력이자 가능성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버트 레이놀즈 명언
“훌륭한 예술은 작가의 한결같은 노력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미국 배우. 그는 5년 연속 박스오피스 1
위를 차지했고 13년 동안 세계 박스오피스
10위권에 들었던 스타였다. ‘부기 나이트’
에서 포르노 감독 잭 호너 역으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오늘은 그
가 세상을 떠난 날. 1936~2018.

☆ 고사성어 / 삼마태수(三馬太守)
세 마리의 말을 타고 오는 수령(守令)이
라는 뜻으로 재물에 욕심이 없는 깨끗한
관리, 청백리를 이르는 말. 조선 중종 때
송흠(宋欽)이 수령으로 부임할 적에 8필
을 쓸 수 있으나, 자신이 타는 말 1필과 어
머니와 아내가 탈 말 각각 1필씩 전체 말
세 필만 거느렸다. 이후 검소한 행차를 뜻
하는 말로 쓰였다.

☆ 시사상식 /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사냥꾼이 몸을 숨기고 사냥감에 접근하
기 위해 위장한 말을 뜻한다. ‘들러리’라는
의미도 있다.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
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회생기업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응찰
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 예정
자로 확정된다.

☆ 신조어 / 워라인
work-life integration의 줄임말. 일과
삶의 통합이란 뜻. 일과 삶을 입체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유
익하다는 것이다.

☆ 유머 / 고수 아내
리브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부가 제
각각 애인을 동행한 채 마주쳤다. 당황한
남편이 “어, 아니!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자 아내는 팔짱 낀 남친을 쳐다
본 뒤 남편을 가리키며 더 크게 소리쳤다.
“김 형사님! 바로 저 두 연놈이에요! 당
장 잡으세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 우 란 중기IT부/hura@



1달러를 2만 원에 산 ‘묻지마 투자’

변경하는 원리이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하긴 하지만, 1년
넘게 운영되면서 대략 1달러와 가치를 비
슷하게 유지해오고 있다. 코인 시장에선 1
다이의 가치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거래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가 운영되는 블록체인 프로그램에
중대한 결함이 없다면, 달러 가치와 비슷
하게 유지된다는 시장의 공간대도 형성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런
원리나 기술에 대해선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하다.

지난달 9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BTC 마켓에 다이가 상장될 때, 1다이가
4000원 넘게 거래됐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7일 코빗 상장 땀 최고 2만 원에 거
래됐다. 실제로 각종 코인 커뮤니티엔 1다
이를 2000원, 3000원에 사놓고 더 오를 가
능성이 없느냐는 투자자도 꽤 있었다.

전문 트레이더들은 1달러 가치(당시
1200원)를 고정하도록 설계된 코인을 그
이상 주고 차익을 벌려 하는 투자에 대해
너무 위험한 투자라고 경고했다. 가상화폐
의 특징과 기술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했
다면,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발행된 코
인을 2만 원 주고 살 일은 없었을 것이다.

투자에 앞서 어떤 코인인지 신중히 생
각하고, 조사하는 투자 습관이 필요할 때
이다.

이슈&인물

주52시간...뜨는 여가산업

임수열 프리프 대표

“취향+여행...경험을 연결해드립니다”

주 52시간은 현대인에게 ‘오늘 퇴근 후 뭐하지?’라는 고민을 가져다줬다. 여가를 ‘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TV 채널을 돌리거나 게임을 하는 오후가 아닌 진짜 퇴근 후 삶을 누리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경험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임수열(33) ‘프리프’ 대표는 이 고민에 주목했다.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프리프는 ‘프렌트립’의 준말이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아웃도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2030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회원 수만 74만 1000명을 넘어섰다.

그에게도 프리프는 도전이었다. 프리프를 시작하기 전엔 스타트업을 컨설팅해주는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도 활동했고, 소셜커머스 업체인 ‘그루폰코리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서비스업’과는 거리가 있는 삶이었다. 하지만 삶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를 프리프로 이끌었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해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경험의 폭이 좁았죠. 태국에 봉사활동 갔을 때 프랑스, 벨기에, 독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 왔대요. 저는 공부해서 유학 가야 하나 고민하는 시점인데 말이예요. 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태국에 왔다는 말에 황당했죠.”

임 대표는 ‘페인킬러(Painkiller)’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해결해 줘야 비즈니스가 된다”며 “사람들의 삶을 다양하게 채워주고 싶다.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워라벨”이라는 말도 예전엔 컨설팅에 서만 쓰는 용어였어요. 하도 야근이 많으니까 평가 차원에서 시트를 채울 때 등장하곤 했죠. 예전엔 직장인들의 삶의 질이 좋지 않았고, 여유 시간이 생겨도 술만 마셨으니까요. 심각했죠. 사람에겐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싶어요.”

- 프리프와 ‘소모임’ 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소모임은 동호회원들이 동호회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 하는 서비스다. 저희는 동호회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호스트들이 자기 액티비티나 여가활동을 올리는 플랫폼이다. 오히려 에어비앤비 트립 버전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에어비앤비나 소모임을 비롯해 다양한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이 있다. 프리프에도 이 점이 좋은 작용을 할 거 같다

“저희는 경험에 대한 마켓플레이스를 지향한다. 누구나 제약 없이 여가를 상품처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가를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프리프는 종전에는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이었다면, 지금은 여가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회사라고 말하고 싶다. ‘여가 컨설팅’까진 아니어도, 프리프에서 사람들이 주말에 뭐할지 찾을 수 있도록 여가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싶다.”

- 프리프의 시작을 설명한다면

“처음엔 아웃도어, 운동 기반으로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동안 해보고 싶었어도 하지 못한 걸 연결해 주고 싶었다. 버스를 빌려서 다 함께 장호항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갔는데, 신청자 수가 엄청났다. ‘진



임수열 프리프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독성로 헤이그라운드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프리프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아웃도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젊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월 때 뭐할까” 현대인의 고민

새로운 아웃도어 기회 제공

2030 중심 회원 74만명 넘어

달리기 러닝크루·양양 서핑숍

마케터들 입소문 타고 대박

핫한 애들이 쓰는 플랫폼 아닌

전국민 여가에 함께하고 싶어

“서울서 축구하면 풋살이지만

중국서 축구하면 여행이 되죠”

짜 해보고 싶었다’면서 물려들었다. 그걸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액티비티를 주말마다 운영했다. 지리산에 가고 싶어도 혼자 가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다.”

- 처음엔 프리프가 아웃도어를 기반으로 출발했지만, 이젠 여가 전반으로 확대됐다

“2016년 3월 앱을 개편하면서 가볍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경험을 연결해주면 어떨까 생각했다. 퇴근 후 일상을 커버하는 것까지도 확장한 거다. 맥주를 만들어 먹고, 한강에서 카약을 타고 노를 보는 것과 같은 활동들이 만들어졌다.”

- 누구나 호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나도 호스트가 될 수 있나

“기자는 보도자료 쓰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의 호스트가 되면 된다. 보도자료 잘 쓰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되지 않을까. (웃음) 처음엔 아웃도어로 시작했어도 지금은 재능을 공유하는 호스트들이 더 많아졌다. ‘월데이 클래스’를 통해 7시부터 10시까지, 퇴근 후 빈 시간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52시간에 맞춰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 같다.”

- 2030 직장인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왜 그런 것인가

“남성분들은 대체로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운동이나 여가 활동이 확실하게 있다.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고, 함께 게임을 하는 식이다. 여성분들은 그런 기회가 적은 것 같다. 또, 다양한 걸 체험해 보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더 두려움이 없는 거 같다. 다양한 형태의 여가를 즐기는 서비스에선 남성 유저를 찾기 힘들다. 저희에게도 그게 이슈다.”

- 프리프에서 대박 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2014년 달리기 러닝크루를 만들었다.

핫한 친구들을 모으고 싶었다. 그래서 만든 게 ‘가로수길 러닝크루’다. 마케터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또, 강원도 양양에 서핑숍이 3개 있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40개가 넘는다. 어떻게 보면 액티비티를 선구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다. (웃음)”

- 3명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직원 수만 32명이 넘는다. 이렇게 판이 커질 것이라 예상했나

“지금도 자신은 없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신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여가는 늘어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모두가 고민하는 지점이니까. 예전에는 레저라는 영역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쉬는 영역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사람들은 레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한다.”

- 지역과 협업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예전에는 한 지역을 방문하면 지역의 스포츠들을 돌아다니는 게 전부였다. 확일화된 여행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계획해서 모객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다.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을 기반으로 유튜브를 보면 되지 않나. 플랫폼이 바뀌고 있다. 지자체와 협업할 때도 이 부분에 주목한다. 산업의 구조가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바뀌고 있다. 고객층이 원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여행을 짜는 거다. 서핑이 그랬다.”

- 프리프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이후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싶다. 건강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말이다. 지금 회원이 74만 명을 넘어섰지만, 젊은 분들이 더 많다. 하지만 요즘 여가의 문제는 전 세대의 문제라는 걸 느끼고 있다. 더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사람도 프리프를 통해 체험하면 좋겠다. 단순히 ‘핫한 애들이 쓰는 서비스’가 아니라 전 국민의 여가에 함께 하고 싶다. 지역 쪽으로나 나이 쪽으로나 확장하고 싶다.”

- 프리프가 다양한 형태의 여가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여행 프로그램은 계속 가져가야 할 거 같다

“단순히 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취미나 취향을 기반으로 한 여행을 떠나는 걸 돕고 싶다. 경험은 전이된다. 서울에서 축구를 하면 일상적인 풋살이 되지만, 중국에서 축구를 하면 여행이 된다.” 김소희 기자 ksh@

사설

언제까지 4류 막장정치 봐야 하나

‘조국 청문회’는 한국 정치가 왜 4류 소리를 듣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채 오로지 진영논리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 결과가 하루짜리 청문회다. 증인도 시간도 자료도 없는 ‘3무 청문회’다. 제대로 검증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부실 청문회가 불을 보듯 뻔하다.

여야의 대결정치가 자초한 결과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조국 구하기’에 매몰돼 스스로 국회를 무력화했다. 국회 규정까지 어겨가며 급조한 ‘셀프 청문회’는 되레 역풍을 불렀다. 100번이 넘는 조국 후보자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의혹은 더해졌다. 대학생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는 커녕 더 커졌다. 다시 촛불을 들기로 했다. 조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조차 조 후보자의 ‘정의’를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부정적 여론도 크게 바뀐 게 없다. 짚수는 통하지 않았다. 법에도 없는 셀프청문회로 명분만 잃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 외에 민주당이 얻은 것은 없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더 한심하다. 당초 합의대로 임했다면 이틀간의 청문회를 할 수 있었다. 충분한 자료와 증인 확보도 가능했다. ‘가족 망신 주기’를 통한 조국 낙마에 매달리다 어렵사리 얻은 기회마저 날렸다. ‘청문회 패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떠밀려 하루짜리 청문회를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 반드시 불러내겠다는 조 후

보자의 가족도 결국 포기했다. 다른 핵심 증인들조차 안 나오면 그만이다. ‘5일 전 출석 통보’라는 법규를 지킬 시간조차 없다. “이럴 거면 차라리 청문회를 안 하는 게 낫다”는 당내 비판은 당연하다. 예상되는 부실 청문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애당초 전략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대안 야당 이미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에 실망만 안겼다.

이러니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자 구하기’에 올인한다. 문제가 있는 후보자인지의 여부는 상관없다.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 야당은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타깃으로 정해 낙마에 목을 맨다.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린다. 능력 검증은 애당초 논외다. 청문회는 더 이상 후보자 검증의 장이 아니다. 이념을 앞세운 진보·보수 진영의 싸움판이다.

3류도 아닌 4류 정치를 바라봐야 하는 국민은 참담하다. 정치 불신은 도를 넘었다. 여야를 떠나 이제 혐오 수준이다. “누가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주장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정의당이 여권 눈치를 보며 공을 들이는 선거법 개정에 국민은 관심이 없다. 국민이 등을 돌리면 무슨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다 한 방에 흑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의도의 그들만 모르는 것 같다.

한 킷



익어가는 가을, 농심은 태풍 걱정

빨갭게 익어가는 사과에 빗방울이 내리치고 있다. 추석 대목을 맞아 햇과일이 출하되는 시기에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이다. 예년보다 빠른 추석에 하루라도 더 햇빛을 받아야 하지만 비바람에 낙과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민들의 마음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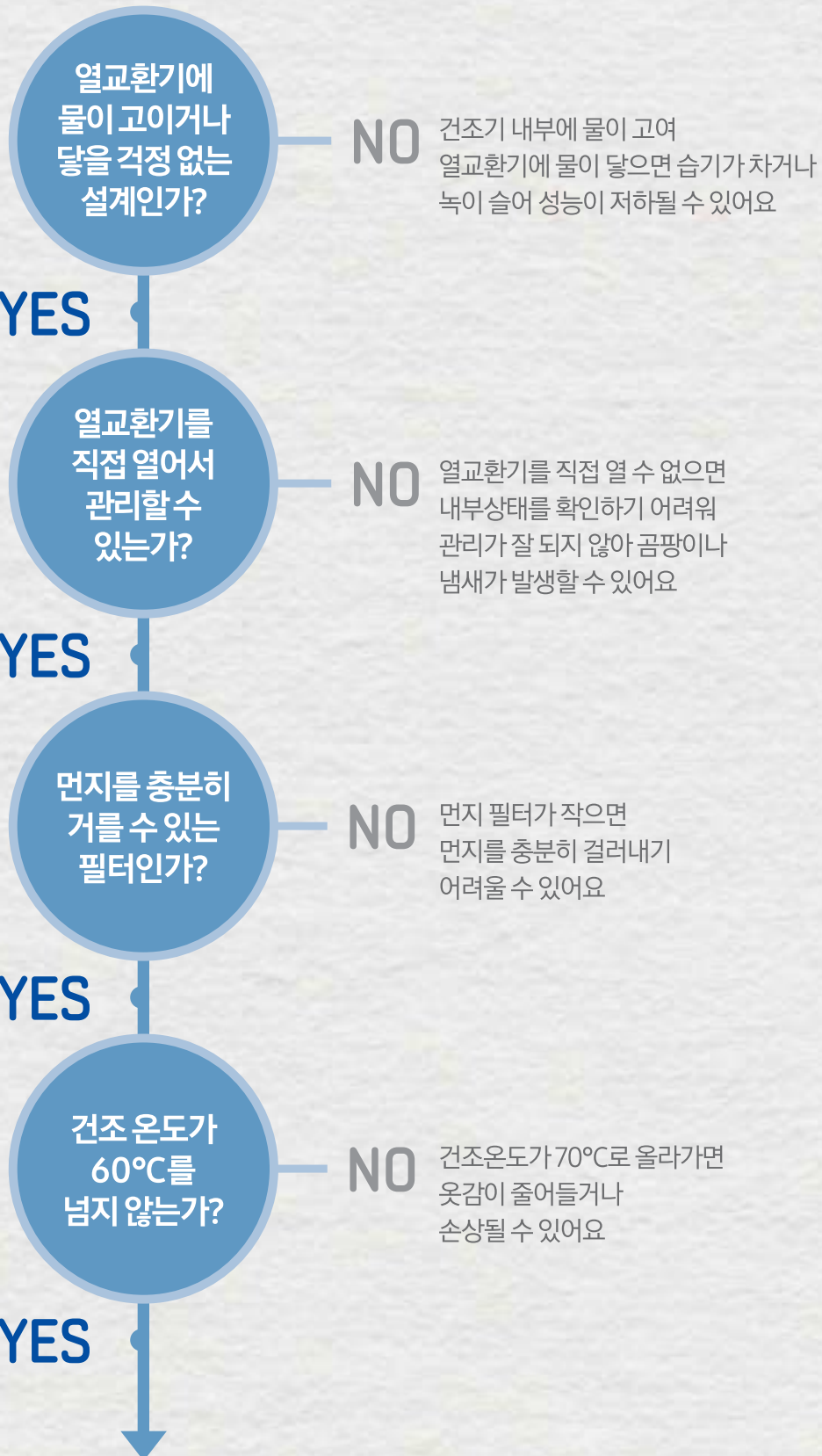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SAMSUNG

자연을 닮은 안심건조 직접 확인해보세요



삼성 건조기 그랑데는
열교환기에 물이 고이거나
달을 걱정이 없는 설계라 안심이에요

삼성 건조기 그랑데는
직접 열어보고 솔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 안심이에요

직접관리형 열교환기
응축수를 사용하지
않는 위생적인 설계



삼성 건조기 그랑데는
먼지필터도 대용량이니까 많은 빨래에서 나오는
먼지도 잘 걸러주어 안심이에요

대용량울인원 필터
대용량에 알맞는
필터 사이즈



삼성 건조기 그랑데는
60°C를 넘지 않는 저온제습 건조로
옷감 손상 걱정을 덜어서 안심이에요

자연을 닮은 건조
삼성건조기 그랑데



밀키베이비
그림작가 김우영

쓰던 건조기 반납하고,
안심하고 건조할 수 있는
그랑데로 바꿀 수 있는 기회!

대한민국 안심건조 페/스/티/벌
2019.9.1 - 2019.9.30
www.samsung.com